

웰츠(E. Weltz)

보르도에서
샤미나드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마리아니스트
Province de France
44, rue de la Santé
75014 PARIS

샤미나드 센터
Chapelle de la Madeleine
7, rue Canihac
33000 BORDEAUX

이 세 번째 교정판
"샤미나드 신부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1995년 7월 보르도에서 마리아회에서 인쇄했다.
44, rue de la Santé 75014 Paris

이 소책자의 번역본들
영어본
필립 티모티 수사 (Chaminade's Bordeaux S.M)번역

스페인어본
에밀리오 오르테가 수사 번역
(Tras los pasos del Padre Chaminade en Burdeos)

한국어본(Korean)
안영주 데레사 (An yong-ju Theresa)번역

목 차

소개	4
보르도: 역사 소개	5
I. 2000년 역사의 도시 성장	5
II. 남서부 대도시의 그리스도교 활성화	8
III. 보르도, 샤미나드 신부와 대혁명의 폭풍우	10
라 마들렌(La Madelein)	15
I. 마들렌 수도원의 간략한 역사	15
II. 샤미나드 신부와 라 마들렌	16
III. 샤미나드 신부의 고난의 해들	20
IV. 샤미나드 신부의 유산	22
샤미나드 신부의 발자취를 따라서	24
생 엘로이 구역(Quartier Saint Eloi)	29
생 미쉘 구역(Quartier Saint-Michel)	36
생트 에울라리 구역(Quartier Sainte-Eulalie)	43
주교좌 성당 구역(Quartier de la Cathédrale)	51
주교좌 성당 쪽으로	51
생 안드레 (Saint André)주교좌 성당	52
뻬이 베를랑(Pey-Berland) 탑과 두 번째 대주교관	55
생 프로제(Saint-Projet) 광장 쪽으로	56
짧은 산책	57
18세기 보르도	59
노비시아 쪽으로	62
생 로령(Saint Laurent)	62
생트 안느(Saint Anne)	65
샤르트뢰즈 (La Chartreuse)	68
여러가지 조언	70
주요 출전	71
다양한 정보	72
주소	72
버스	72
보르도 주요도로	74
샤미나드 신부와 마리아니스트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하여	75

소 개

보르도에서 샤미나드 신부는 사목을 시작했고, 마리아회와 마리아의 딸 수도회를 창설했다.

이 소책자는 마리아니스트들에게 샤미나드 신부의 보르도를 발견하게 할 것이며, 보르도 방문을 도와 줄 것이다.

*

제 1 부는 비투리게스족의 수도(首都)의 역사와 18 세기까지 그리스 도교의 정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보르도에서 샤미나드 신부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라 마들렌에 특별히 관심을 쏟으면서, 방문할 장소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만을 지시할 것이다.

이 1 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샤미나드 신부 시대의 거리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했다.

제 2 부는 샤미나드 신부가 사목했던 보르도의 몇몇 시가지 구역들, 곧 생 엘로이, 생 미쉘, 생트 에울라리 등의 방문을 제안한다.

*

방문객과 산책가들을 돋기 위해 거리 지도를 첨부하고, 거리의 현재 이름들을 기입했다. 이 소책자 편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웰츠 신부님은 역사에 관한 조사를 해주셨고, 불레 신부님과 브리앙 잠빼 에 수사님은 도표와 삽화들을 맡아주셨다. 또한 자료 입력과 교정을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

소책자 ‘샤미나드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가 여러분에게 우리 창립자를 더 잘 알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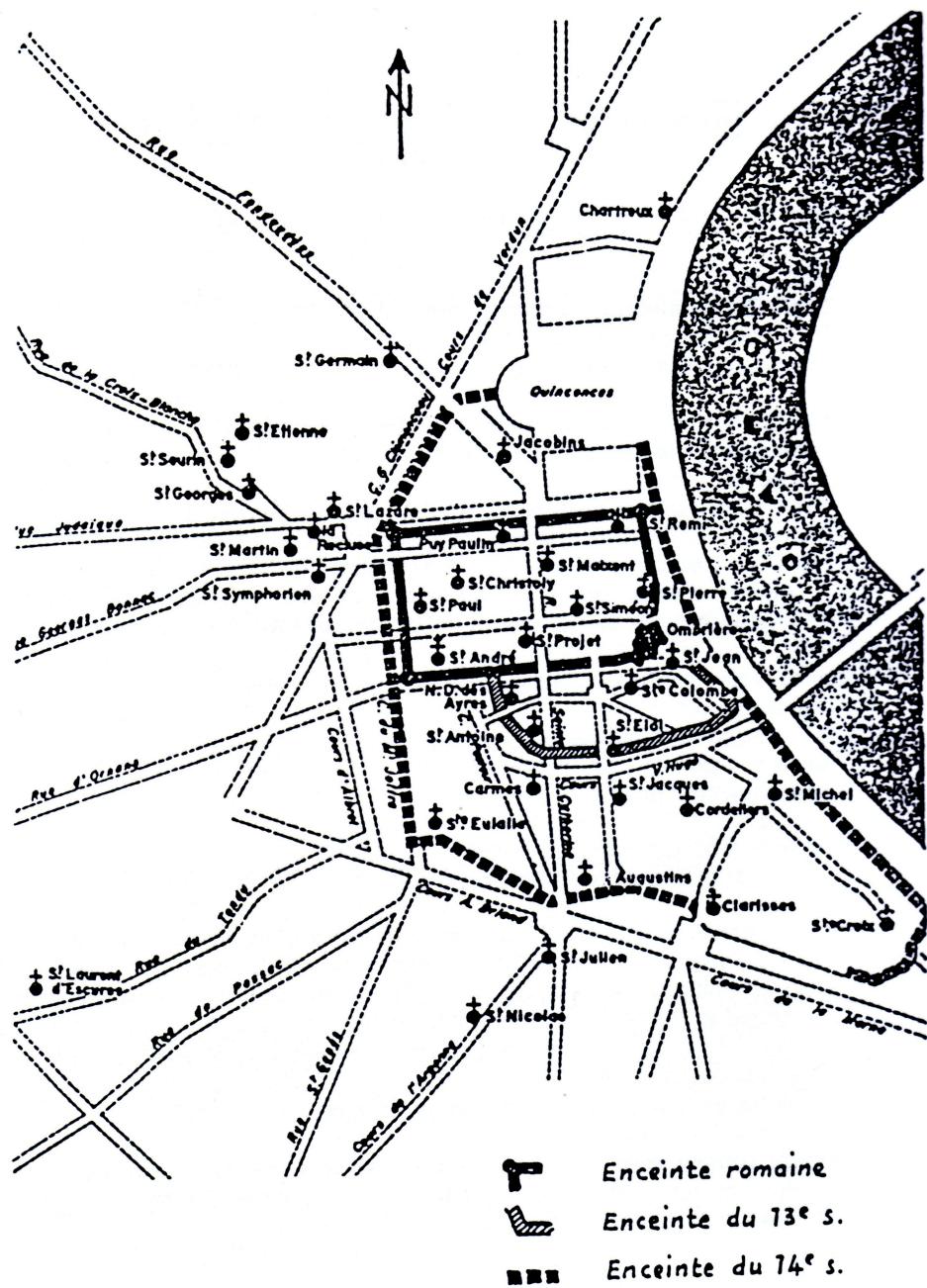
베르트랑 부제 수사 SM.

보르도: 역사 소개

I. 2000년 역사의 도시 성장

- 276년 이전:
비튀리즈 비비스크 족의 수도, 상업지구
상거래가 활발했던 로마 도시
기원후 276년 침략으로 몰락.
- 방어용 요새로 재건. 둘레 2,350m의 장방형(32 헥타르)
전설에 따르면 1세기에 그리스도교 전파, 분명 4세기에 전파되었을 것
교외에 세 곳의 종교 센터: 생 서랭, 쌩트 코아, 쌩트 에울라리
침공들:
8세기 아랍인들의 침공, 9세기 노르망인들의 침공
가스꽁 공작들과 그 다음 아枢텐 공작들. 1152년, 루이 7세는
공작들의 상속녀인 알리에눌 다枢텐과 이혼한다. 그녀는 1154년
영국의 왕이되는 노르망디 공작 앙리 뿔랑따저네와 재혼한다.
- 영국 왕들 통치하의 보르도(1154년 – 1453년)
큰 번영
영국과의 무역
쟈고 꼼뽀스텔 순례의 중계 도시
도시 둘레의 확장
1227년: 포부르¹ 생 엘로이
1302–1327년 세 번째 성벽
두 개의 포부르, 곧 포부르 생 서랭과 포부르 샤르트롱.
- 1453년 보르도는 프랑스령이 된다.(카스티옹 전투에서, 탈보의 전사)
샤를 7세는 1456년 하 요새와 트롬펫 성을 세운다.
루이 11세는 보르도인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을 편다. 루이 11세는
상업을 촉진하고, 1462년 옴브리에르 성에 고등법원을 세운다.

¹ 역사주: 포부르는 옛날 성밖에 속했던 대도시의 구역 이름



250년 동안, 보르도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1327년에 설정된 경계를 지킬 것이다.

르네상스: 귀엔 끌레주(전문 학교) – 까이오 문 – 고스-클로슈
16세기 종교 전쟁.

프롱드(특히 1649–1653년) – 루이 14세의 반감. 모든 반란을 매우 빠르게 진압한 루이 14세는 르롬펫 성을 확장시키고, 쌩트 코아 근처에 루이 요새를 세우게 한다.

- 18세기 보르도는 1730–1789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
상업의 번창과 지방 장관들의 도시 정치 덕분이다.
 - 부쉐(1720–1743): 로아이알 광장
 - 투르니(1743–1757): 도핀 광장(Place Dauphine), 투르니 산책로, 옥트로이 문, 강으로 난 정문
 - 뒤프레 드 생-모르(1766–1785): 그는 원칙적으로, 프롬펫 성을 파괴할 권한을 받아낸다.(1785–1816)

보르도는 샤미나드 신부도 아마 우리처럼 감탄했을 새로운 얼굴을 갖는다.

로아이알 광장(들라 북스 광장) 그리고 강둑으로 난 정면
고등법원 광장

르 페아트르(Le Théâtre), 코메디 광장(place de la Comédie),
샤뽀 후즈 산책로(Cours Chapeau-Rouge)의 신 시가지,
앵땅당스(Intendance), 돌핀 광장(Place Dauphine),
뚜리니의 작은 길들(Allées de Tourny),
클레망소 산책로(Cours Clémenceau), 공원(Jardin Public) 등

N.B. 종교 건축은 17세기에 호황시기를 맞았다. 주교관은 예외적으로 18세기에 건설되었는데 현재 시청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II. 남서부 대도시의 그리스도교 활성화

- 기원: 기원은 아래의 두 가지를 위주로 탐구되어야 한다:
 - 생 서랭(세베리누스)
 - 오존느와 생 뿐린 드 놀에 의해 예증되는 엘리트의 성광
- 6 세기부터, 그리스도교 정착은 장방형의 도시에 골고루 배치되었고 (cf.지도), 여러 센터들, 곧 생 서랭, 생 마르탱, 생 제르멘, 베네딕도 수녀회인 생트 코아, 생트 에울라리 주위로 교외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간 것 같다.
- 중세 동안, 보르도의 깊은 신심은 애덕의 솔선들로 예증되었다.
 - 병원 창립
 - 1224년경 생 장 병원
 - 1352년경 생 안토안느 기사령

수도회들이 들어온다.

- 1190년경 대 가르멜 수도회들
- 1229년 프란치스코 회원들(꼬르들리에-마뉘)
- 1230년 도미니꼬 회원들(설교자 형제들 또는 자꼬뱅)
- 1282년 아우구스티노 회원들
- 1320년 메르시의 사제들
- 1383년 샬트르 회원들
- 1240년경 클라라 수녀회
- 1343-1354년 사이에 아우그스티노 수녀회

자꼬 드 콤포스텔 성지순례

종교 건축의 발달

1441년, 빼이 베를랑 대주교의 대학 창립.

- 프랑스 영토 회복 이후(1453),
보르도는 르네상스 시기에 보조를 맞춘다. 귀엔느 꿀레주,
칼빈파의 폭발, 가톨릭 반종교개혁 등. 이 쇄신은 수도자들의

새로운 약동을 유리하게 했다. 많은 수도회가 새로 들어온다.

1572년 예수회	1589년 페이앙 회
1601년 카푸친회	1602년 레꼴레 회
1608년 미님므 회(프란치스코회의 가지)	
1609년 샬트르 회가 다시 들어온다	
1615년 생 장 드 뒤 또는 애덕의 형제회	
1619년 생트 에울라리에서 오라토리오 사제들	
1626년 맨발의 가르멜(작은 가르멜들).	

1521년 아농시아드 수녀회	
1610년 가르멜 수녀회	1627년 카타리나 수녀회
1634년 베네딕도 수녀회	1640년 방문회
1641년 마들렌 수녀회	1672년 담 들라 포아 수녀회.

보르도에서도 창립이 있었다:

1606년 우술린 회	
1606년 노트르담 수녀회	
1638년 오플린이라 불린 생 요셉 수녀회	
1649년 미니메뜨 라 불린 믿음의 딸 수녀회.	

- 18세기에, 이 움직임은 속도를 늦추고, 변화가 일어난다.
라자리스트회는 오르디낭 신학교를 경영했다.
1758년 에꼴 크레치안 수사들은 4개의 본당 학교를 열었다.
생 뱅상 수녀회(회색 수녀회)는 17세기 말부터 불려와서, 서민(무료)
학교들을 열고, 병원, 고아원, 자선 사무소를 맡아 운영했다.
1744년 선한 목자 수녀회는 회개한 윤락 여성들을 맞아들였다.

그러나 보르도 고등법원이 1762년 예수회를 폐지한 것은(양세니즘과
갈리칸들의 승리) 마들렌 꿀레주를 사라지게 했고 1784년 독트리네르
수도회에 귀엔 꿀레주가 맡겨진다.

III. 보르도, 샤미나드 신부와 대혁명의 폭풍우 (1792 – 1800년)

- 대혁명 전야에 보르도는 아래와 같이 특징지어지는 대도시였다.
포도원로 인한 매우 큰 경제적 활동
매우 다양한 수공업,
매우 호황이었던 해상 무역
수많은 학교들에 의해 활성화된 문화적 활력
부르주아 엘리트의 솔선들 곧 아카데미, 박물관 등
의회와 종교인들의 활동들.
- 샤미나드 신부가 부르고뉴 문에 1791년 12월에 도착했을 때,
대혁명의 조짐은 이미 성직체계와 이 번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국유 재산 몰수와 판매가 진행되었다.
1791년 7-8월부터 남자 수도원들이 떠났다.
1791년 6월부터 수사들에게 교육이 금지 되었지만, 그럼에도
쉬엔 끌레주에서는 성직자의 시민헌법에 선서하면서 모든
독트리네르회원들은 교육을 계속했다.

하지만 수녀회들은 아직 싸움을 계속했다.
봉쇄 수녀회들은 그들의 수도원 안에서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었고,
그리즈(회색) 수녀회는 대혁명 기간 내내 애덕의 보건 진료소와
병원들에 상당수 남아 있었다.

시민헌법의 점진적인 적용은 선서 사제와 비선서 사제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다.

(시민헌법에) 선서 교회 조직은 본당 구조들의 개정을 조장했고,
폐쇄된 교회들의 판매를 조장했다. 비선서 사제들은 아직 수녀원이나
몇몇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쟁은 적지 않았다.
선서사제들은 클럽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었다. (cf. 랑고아랑과 뒤뻬의
학살, 1792년 7월 15일). 국민의회의 권력 장악과 9월 학살은 많은
사제들을 자발적인 유배로 밀어 내었다. 루이 샤미나드는 9월 15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보르도에서 배를 탄다. 다른 사제들은 폭풍우와
맞서 확실한 은둔지 준비를 더 선호했다.

- 샤미나드 신부는 두 번째 해결책을 선택한다.

랑고아랑 덕분에, 샤미나드는 생 로령과 부르디외를 구입할 수 있었다. 물론 샤미나드는, 1790년 체류 때, 친구들이 그를 맞아들였던 아바디 거리 8번지를 합법적인 집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다바디 거리 13번지)

1792년 1년 내내 샤미나드는 이 소유지를 쓸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했고, 뻐리귀에서 부모를 찾았다.

5년동안 샤미나드는 보르도 교회의 고뇌와 희망을 나눌 것이다. 1795년, 그는 생트 에울라리 거리 14번지(현재 뽀-루이 랑드 거리 28번지)에 마련한 기도실에 신자들을 맞아들인다. 사도직은 그의 전기에 모두 묘사되어 있다. 사도직은 항상 비선서 사제들에 대한 법 때문에 위협당하고 있었다.

- 프랑스 공화력 5년 제 12월 18일(1797년 9월 4일) 쿠테타

정부는 이 법률을 19일부터 엄격하게 적용시켰다. 샤미나드 신부는 더 이상 망명자 리스트에서 자기 이름을 제명시키는데 실패 한다. 그는 1797년 9월 11일 스페인을 위한 여권을 신청하고, 요셉 부에와 함께 16일 출발한다. 그의 부친은 아마도 프랑소아 곁인 뻐리귀로 이미 돌아갔을 것이다. 그곳에서 부친은 1799년 3월 4일 선종한다.

- 루이 라파르궤의 보살핌 덕분에 망명자 리스트에서 제명된 샤미나드 신부는 1800년 말에 보르도로 돌아온다.

샤미나드는 뻐리귀외에 있는 동생 프랑소와가 그가 없는 동안 관리했던 생 로령 영지의 소유자이긴 했으나, 그는 도시 한복판에 머물기를 더 선호했다.

라무루즈양 덕분에 샤미나드는 아르노 미끼거리 7번지(현재 36번지)에 숙식할 곳을 찾고, 거기에 기도실을 연다.

그리고 그가 지도하던 사람들과 접촉을 다시 시작한다.

1801년 2월 2일 샤미나드는 꽁그레가시옹을 창립한다.

- 샤미나드는 사도적 선교사라는 칭호로 프랑스 교회의 재조직에 참여한다.

샤미나드는 밸자스 교구 관리를 맡는데 이 교구는 1802년 협약으로 인해 보르도 교구에 통합될 것이다. 하지만 샤미나드는 모든 공식 지위와 모든 교구 직위를 사양한다. 그것은 완전히 선교 활동에 헌신하기 위해서이다.

- 피정, 강론, 지도
- 자비 사업에 협력
- 꽁그레가시옹, 교육과 가르침

- 꽁그레가시옹은 4개의 그룹(청년그룹, 미혼 여성그룹, 남성들, 여성들)으로 나뉘면서 급성장해 나갔다.

1651-1747년 사이에 오르디낭 신학교를 수용하는 건물들 안에서 샤미나드는 생 시메온 거리 15번지에 필요한 지역을 찾아낸다.

1803년, 샤미나드는 다른 지역들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그가 생 시메온이나 생 프로제 같은 폐쇄된 교회에 눈독을 들였던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느님의 섭리로, 샤미나드 신부의 활동을 이해하고 보호했던 아비오 주교의 도움을 받는다.

- 생트 에울라리 거리 한 복판에, 마들렌 성당이 자유롭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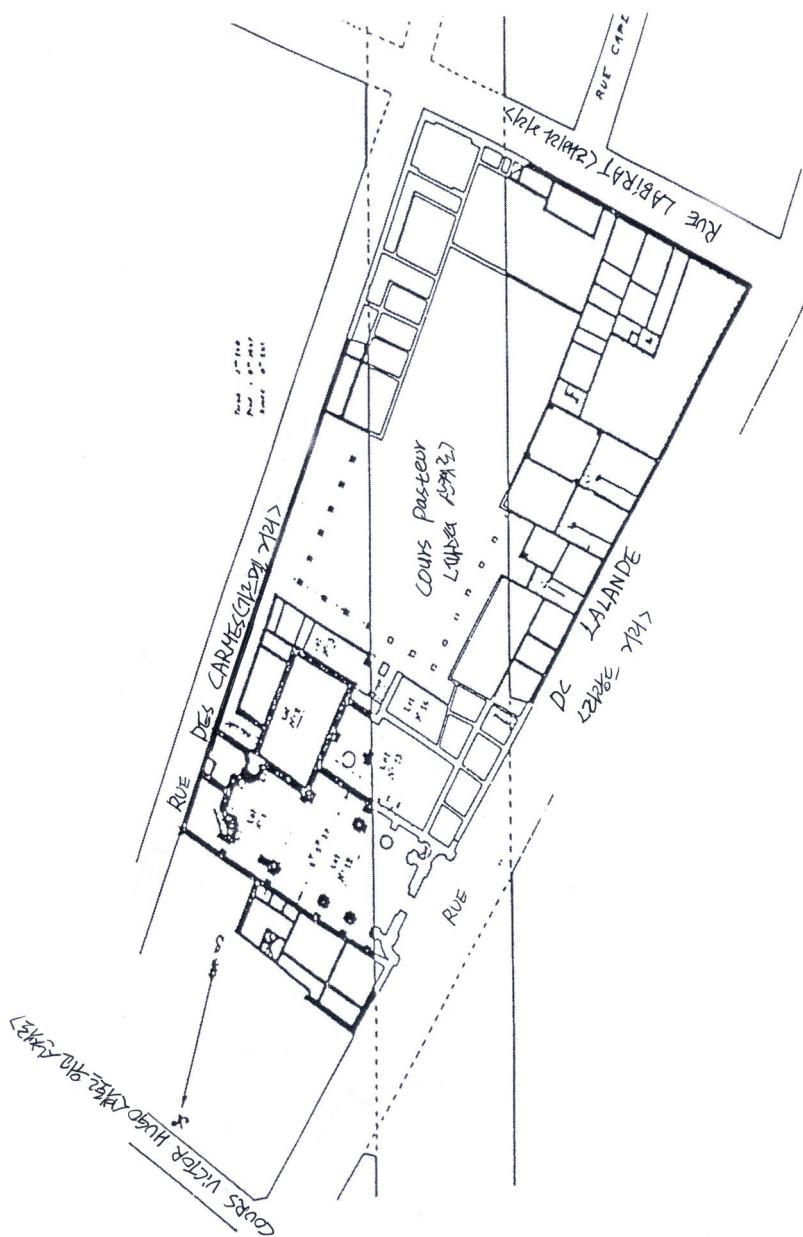
1790년부터 보르도의 다른 수도원들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이 된 마들렌 수녀회 성당은 1793년 베르나르 라파르그 상인이 구입하여, 이국적인 물건들을 파는 가게로 쓰이고 있었다.

선서 사제가 아직 있던 생트 에울라리 성당 보좌신부인 P-TH 류이에 신부가 베르나르의 미망인에게서 1802년 1월 13일 전세를 낸 성당은 1802년 4월에서 1803년 7월까지 본당 성당으로 사용되었다. 1803년 8월부터, 생 엘로아 본당은 매우 심각하게 보수할 필요 때문에, 마들렌 성당에서 본당 미사를 집전하게 된다.

1804년에 아비오 주교는 샤미나드 신부의 자유재량에 이 성당을 맡긴다. 8월 14일 첫 번째 칙령이 꽁그레가시옹에게 거기서 성모승천 축일을 거행하게 해 주었다.

12 월 12 일 다른 하나의 칙령은 샤미나드 신부에게 그의 전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원했던 모든 보증을 주었다. 샤미나드는 생 시메온 거리를 떠나, 라랑드 거리 65 번지(현재 라랑드 거리 9 번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대혁명 이전 마들렌 수도원과 1901-1903년에 뚫린
파스터 산책로의 흔적

라 마들렌(La Madeleine)

I. 마들렌 수도회의 간략한 역사

- 이 수도원의 기원(마들렌수녀회)은 15 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432년, 보르도 출신의 부유한 상인이 아이레스 거리에 부그롱 골목에 생 마르소 병원을 세운다. 이 병원은 1519년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감화원이 된다. 곧 터에서 온 생트 마들렌이라 불리는 수녀들이 운영한 윤락여성들의 수도원인 마들렌 수도원이다.

1555년 페스트로 인해 흩어진 공동체는 자끼뜨 드 브랑다와 다른 수녀들 덕분에 재 편성된다.

1584년 다시 분산되는데, 노후한 수도원은 폐허의 위험이 있었다.

드 구르게 부인(올리브 드 레스토냑)은 1630년경 라랑드 거리의 새건물에서 사업의 연속을 보장해 주었다. 부인들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1641년, 사람들은 1618년 드 메뉴라이 후작과 아타나즈 볼레 카푸친회 신부가 빠리에서 창립된 마들렌 수녀회에 도움을 청한다.

- 라랑드 거리, 마들렌 수도원

성당은 1641년 8월 14일 축성된다. 드 구르게 부인은 1652년 임종을 맞고, 작위와 권리, 창립자의 의무들을 사촌 위발 부인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클레락회 원장신부인 자끄 드 깜포 드 키에펠이 남긴 유산 덕분에 1672년 9월 17일, 이 임시 성당은 정식으로 성당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최종 성당은 1685년 3월 16일 계약 서명 날짜와 1688년 7월 22일 부르몽 주교의 축성식 날짜 사이에 고레 대목수가 건설한다.

1790년까지 보르도 대주교가 부여한 권한인 단순 수도회(사목에 책임이 없는)가 된 수도원은 부글롱의 옛 병원의 재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 이 수도원은 샤르트롱의 빨루(주택지)에 다른 봉토를 소유했으며, 그들의 수입은 항상 미미했다.

수도원 안에 아래의 것들이 있었다.

- 봉쇄 수녀원
 - 형무소, 왜냐하면 부글롱 병원을 감옥으로 변경하라는 1519년 고등법원의 판결이 항상 유효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곳에 남편이나 부모가 부정하다고 고소하는(옳건 그르건 간에) 여성들을 보통 가두어 두었다.
 - 기숙비를 내는 할머니들을 맞아들이는 양로원과 여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기숙사가 있었다. 이 기숙사에서는 매우 고급 교육을 시켰고, 예능(미술, 음악, 수예)도 가르쳤다.
- 대혁명 당시, 수녀들은 수도생활포기를 거부하고, 추방될 때까지 수도생활에 충실했다.
- 1792년 5월 15일, 1790년 이미 했던 재산목록 검사
 - 6월 2일 종탑 압수
 - 7월 29일 추방명령이 실행되었고, 공동체는 분산되었다. 이 추방 명령으로 프랑스 공화력 2년 수확의 달 19일(1794년 7월 7일)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두 명의 순교자가 탄생한다. 그리고 아델라르드(잔느 베로닉 꼬르드) 수녀는 창립초기에 드 라무루즈 양에게 귀중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II. 샤미나드 신부와 라 마들렌

1. 꽁그레가시옹

- 제정시기 동안, 샤미나드 신부는 거기서 성당만을 사용했다. 특별한 회의를 위해, 샤미나드 신부는 계단석, 두 개의 제의실, 그리고 제의실 위에 있는 두 개의 방을 사용할 수 있었다.
- 부르봉 왕가의 회기(1814)는 1809년 나폴레옹이 그의 파문으로 유발된 분쟁에 뒤이어 해산했던 꽁그레가시옹에 새로운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샤미나드 신부는 까름므 거리 7번지(현재 까니악 거리 7번지)를 전세들 수 있었다. 거기서 그는 두 장소를 더 쓸 수 있게 되었다. 곧 지하실과 1층 수녀원 성당과 지금도 존재하는 강당이다.

- 꽁그레가시옹의 전교는 다시 활발해졌고, 그 열매를 맺었다. 특히 1817년 마리아회가 거기서 탄생할 것이다.
- 25주년 기념 행사를 경축하기 위해 꽁그레가시옹은 성당에 새 제단을 세울 것이다. (1826)

2. 마리아회

- 창립회원들은 세구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작은 집에 정착하고(현재 꼬망당 아르눌 거리 65번지), 1817년 12월 11일 라 마들렌 제의실에서 첫 서원을 한다.

1818년, 공동체는 머뉘 거리 53번지에 정착하고, 거기서 최초의 마리아니스트 학교를 연다. 곧 오귀스트 기숙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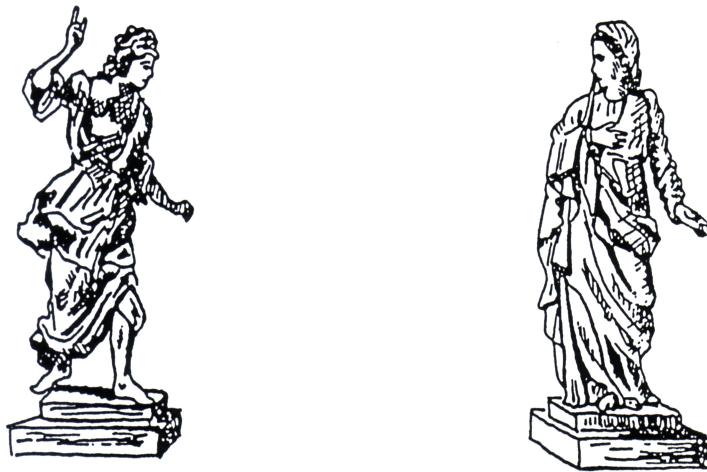
샤미나드 신부는 ‘작은 사보아이아³ 사업’과 성직자 공부를 시작한 M. 꼴리노를 그의 곁에 잡아둔다.
- 샤미나드 신부는 차례로 다음을 구입한다.

1822년에서야 비위질 라랑드 거리 1번지(현재 2번지)
사미나드 신부가 1819년 거주하게 될 2번지(현재 4번지)

1820년, 샤미나드 신부는 까니악 거리 7번지와 성당을 결정적으로 사들일 수 있으며, 1822년 라랑드 거리 3번지(현재 8번지와 10번지)를 구입한다. 이렇게 해서 마들렌 수도회의 일부를 복구시킨다.
- 그 사이에 샤미나드 신부는 성당이 1819년 9월 29일 왕령으로 공개 기도실이 되도록 간청하고 허락을 받아낸다.
- 1823년, 사미나드 신부는 3번지에 사제 지망생들을 위한 첫 수련소를 만든다. 그는 거기서 중등교육이나 신학교육을 받는 청원자와 수련자, 유기서원자들을 모은다.

샤미나드 신부는 그들을 위해 P.꼬슨 총서를 구입하지만, 이 총서는 미라이 거리 생트 마리 학교에 배치되었다가, 1835년 라이락으로 옮겨지고, 다시 1845년 보르도로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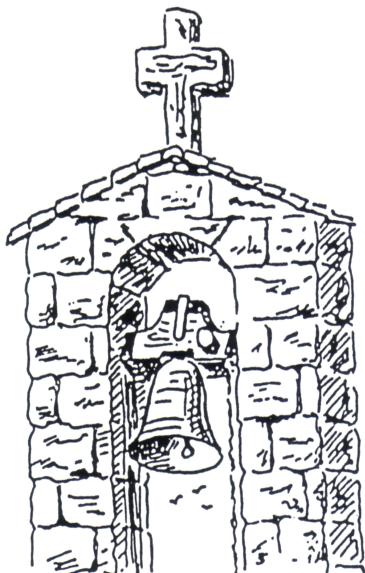
³ 역사주 : ‘보아이아’는 프랑스 동남부 알프스쪽 지역민들을 지칭한다.



1792년 샤미나드 신부가 생로령 영지를 위해 구입한 성모영보의 천사와 마리아, 현재 라 마들렌에 소장되어 있다.

- 1830년 혁명은 1831.보르도에서 데모들로 표현된 맹렬한 반교권주의 반응이 뒤따른다. 이 데모들은 샤미나드 신부에게 생 로령의 수련소를 닫고, 라랑드 거리의 젊은 수도자들을 분산시키게 한다.
- 사실 이 부재는 5년동안 지속된다. 그동안 까이에 신부는
 - 종교활동들을 지속시키고
 - 원죄없이 임태되신 마리아 회(처녀들과 부인들)라는 단어로 꽁그레가시옹을 재활성화한다.
 - 그리고 벽을 강화하고, 성당 집기들을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한 대공사를 한다.
- 1836년 9월 중순경, 샤미나드 신부는 오슈에서 그를 지체시킬 수 있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보르도로 급히 되돌아온다. 라무루즈 양의 임종이 멀지 않았고, 십자가 현양축일인 14일에 그녀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창립자는 모든 시간을 수도회 가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바친다. 라랑드 거리 8-10 번지의 큰 건물은 잠들어있는 것 같은데, 까이레 신부가 사는 2 번지와 샤미나드 신부가 그의 비서들을 일하게 하는 4 번지는 큰 활동으로 북적였다. 1839년 4월 12일, 마리아회는 ‘짧은 찬사’를 받았다. 그것은 샤미나드 신부가 마리아회 운영을 세 명의 보좌에게 맡기는 운명의 날인 1841년 1월 7일까지 지침서들과 큰 회람지들의 시기다.



샤미나드 신부가 축성한
라마들렌의 종,
현재 종탑에서 떼어내어,
샤미나드 신부의 방으로
가는 복도 밑에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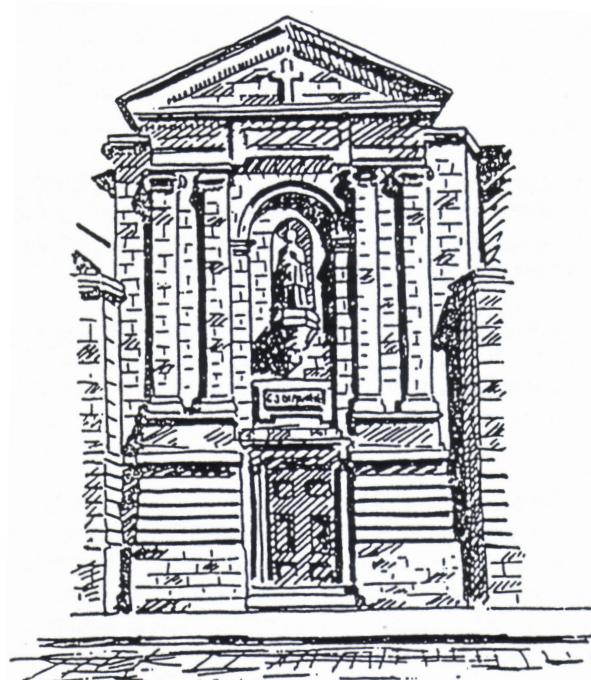
III. 샤미나드 신부의 고난의 해들

- 1841년부터, 샤미나드 신부는 라 마들렌과 생 로랑 사이에서 그의 시간을 나눈다. 수련소는 1841년 다시 열리고, 1843년 3월 19일 생 제네스 거리로 옮겨진다. (현재 생 제네스 거리 160번지)
- 1844년 2월 10일 라베즈 씨의 중재가능한 결정의 통지 이후 분쟁이 발발한다.

도네 주교의 지지를 받은 까이에 신부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구셀 신부가 6월 28일 레알몽에서 멀어지기를 선호했을 때, 샤미나드 신부는 수련자 양성을 담당하고, 보통 생트 난에서 기거했다.
- 1846년 생레미에서 개최된 총회는 마리아회 총장으로 까이에 신부를 선출한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는 샤미나드 신부에게 생트 안을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것은 10월 26일이다. 선출은 1845년 12월 23일 주교들과 종신서원자들의 봉헌 꽁그레가시옹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1846년 1월 13일 샤미나드 신부에게 통고되었다..
- 총본부에서 샤미나드 신부에게 반대할 분쟁은 창립자의 마지막 생애를 갈바리아로 만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제 7권(1977)에서 출간한 편지와 '사미나드 신부의 마지막 생애'(로마, 1969)인 바세이 신부의 책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다.
- 1849년 3월 12일 한 중재인이 창립자와 마리아회 사이의 재산분배에 관한 그의 결정들을 알렸다. 샤미나드 신부는 8월 8일 유언장을 다시 만들고, 총본부는 9월 중순에 라랑드 거리 8-10번지에 정착하기 위해 2번지와 4번지를 떠날 것이다.
- 이 시기 동안, 모든 수도지들의 시선은 새 세상으로 향한 것 같다. 곧 레옹 메이에 신부는 가능한 창설을 답사하기 위해 떠났고, 1849년 12월 3일, 아메리카에 개척단 첫 그룹이 출발한다.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임명된 관구장 회의를 제안하면서, 로테아 신부 혼자, 그의 목소리를 들리게 했다. 1850년 1월 7일 총본부는 창립자의 권리是什么인가? 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을 결정한다.

- 그러나 너무 늦게 내린 결정이었다. 1월 6일 샤미나드 신부는 뇌출혈로 쓰러져, 혀와 수족이 마비된다.
역사는 창립자와 그의 자녀들의 최후 관계들을 간파할 수 있을까?

샤미나드 신부는 1월 22일 임종한다. 시신은 주교좌 성당에서 장례미사 후, 24일 샤르트뢰즈 묘지에 있는 성직자 지하묘소에 안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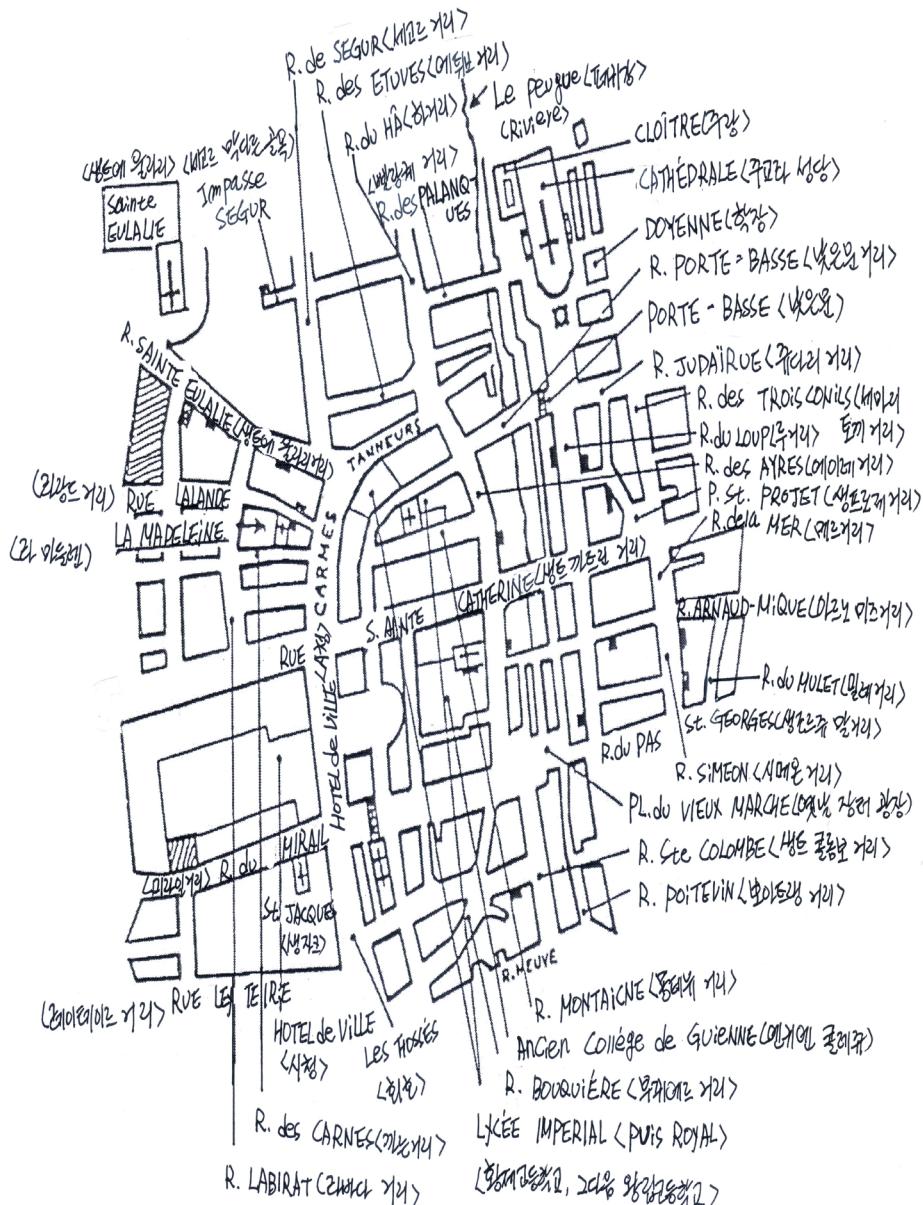


1950년 샤미나드 신부 선종 100주년 기념일에 소개된
그대로의 마들렌 성당 정면

IV. 샤미나드 신부의 유산

- 1850년 4월 25일 보르도 시립자선가들은 토론을 통해 그들의 유산을 받아들인다.
비적출 상속인들은 상소한다. – 1851–1855년 소송.
- 1849년 중재 판결로 인정된 매입권을 내세우고, 세 개의 건물을 취득한다.
 - 라랑드 거리 2번지와 4번지
 - 까니악 거리 7번지
- 1855년, 유리한 소송 후에, 시립자선가들은 까이에 신부에게 상당수의 물건들을 돌려준다. 종이, 성유물, 옷(모자, 망토, 참사회원의 어깨 망토)
- 그러나 여러 상속인들이 상소했고, 소송은 재기되고, 1858년 판결은 형식상의 결함으로 인해 유언장을 취소한다.
- 생 로랑 소유지는 두 개의 공공도로가 나면서 1859년 분할된다.
 - 외부 대로
 - 무네이라 거리(현재 144 레지망 댕팡띠리 거리, 병영을 따라서, 그의 마지막 구간에서) 그리고 공공 경매에서 끝음으로 팔린다.
- 하느님 섭리의 보복인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가?
1903년, 프랑스는 수도자들을 쫓아내고, 보르도 시의회는 대로 서쪽 부분에 뚫린 길이 샤미나드라고 불리는 곳인 ‘샤미나드 거리’라 불릴 것이라 결정한다. 시의회가 보르도 시를 위해 수많은 일을 했던 그분을 알았을까?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이 그분께 기도하려 샤르트뢰즈 묘지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1815년의 보르도



샤미나드 신부의 발자취를 따라서

경로들은 중간 정도의 도보자를 위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어 있다.

방문자들은 여가 시간에 맞추어 몇 가지
경로를 함께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 생 미쉘 구역 + 생엘로이 구역
- 생트 에울라리 구역 + 주교좌성당 구역

N. B. 자동차는 일주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보르도 17"

"노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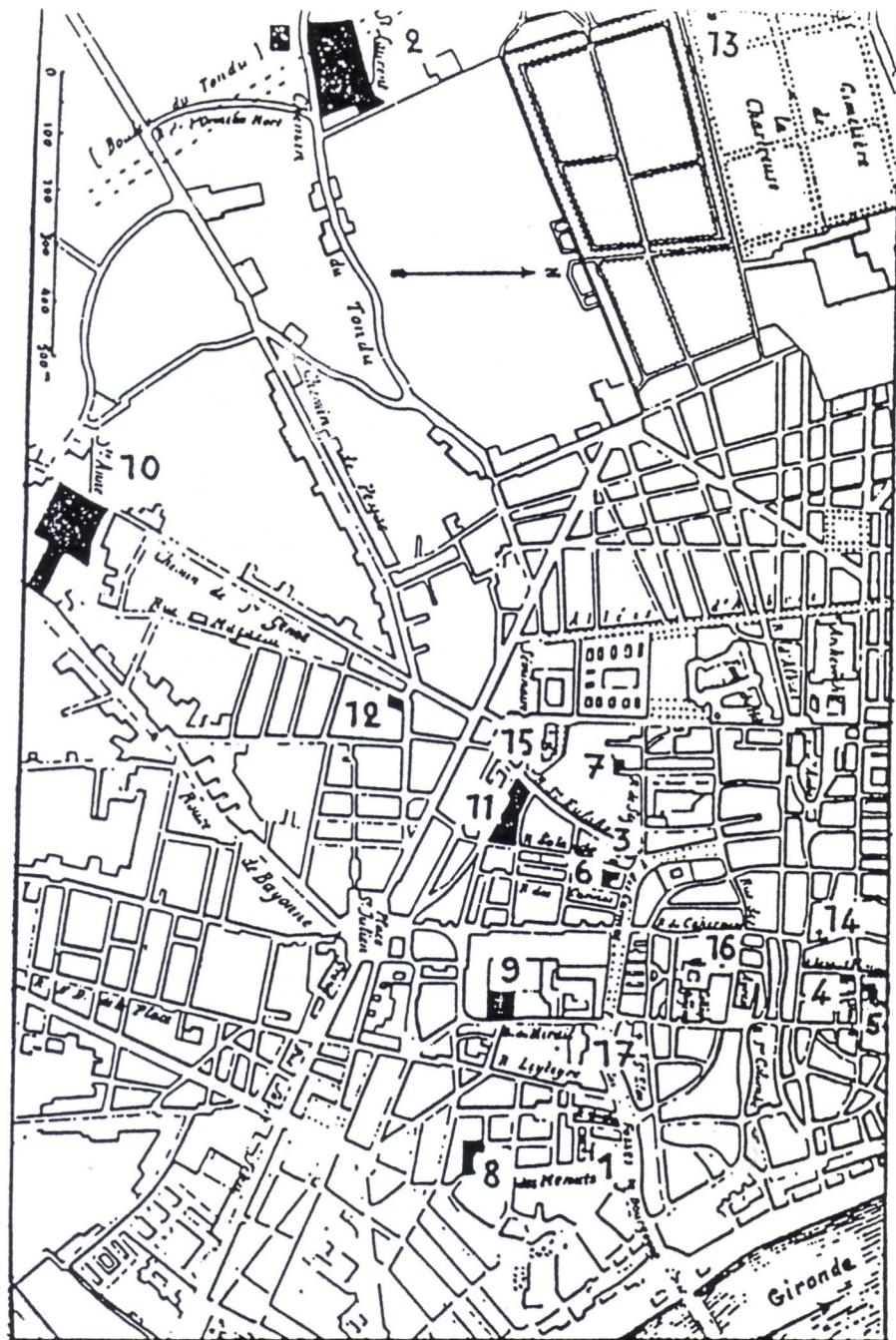
"샤르트뢰즈"

샤미나드 신부의 선교 실행 장소	샤미나드 시대 거리 이름	현재 거리 이름
1 공포시대 (1790–1797) 당시 샤미나드 신부의 공적인 거주지	아바디 거리 8 번지 (8, rue Abadie)	다아바디 거리 13 번지 (13, rue Dabadie)
2 생로령 수련소	동뒤 길 (Chemin du Tondu)	동뒤 거리 229–233 번지 (229–233, rue du Tondu)
3 생트 에울라리 거리 소성당(기도실) (1795–1797)	생트 에울라리 거리 14 번지 (14, rue Ste Eulalie)	쁠 루이 랑드 거리 28 번지 (28, rue Paul-Louis Lande)
4 소성당 (1800–1801)	A. 미魍 거리 7 번지 (7, rue A. Miqueu)	A. 미魍 거리 36 번지 (36, rue A. Miqueu)
5 소성당 (1802–1804)	생-시메온 거리 15–16 번지 (15–16, rue St Siméon)	생 시메온 거리 15–11 번지 (15–11, rue St Siméon)
6 라 마들렌 성당 (1804년 8월 15일부터)	거주지 (1805–1819) 거주지 (1819–1850)	- 라랑드거리 65 번지 - 라랑드 거리 2 번지 (65, rue de Lalande 2, rue de Lalande)
		- 라랑드 거리 9 번지 (9, rue de Lalande) - 라랑드 거리 4 번지 (4, rue de Lalande)
7 마리아회 첫 거주지 (1817 –1818)	세구르 막다른 골목 14 번지 (14, Impasse Ségar)	Ct 아롱드 거리 65 번지 (65, rue Ct Arnould)

8	머뉴 거리 기숙사 (H. de Razac)	머뉴 거리 46-47 번지 (46-47, rue des Menuts)	머뉴 거리 53-51 번지 (53-51, rue des Menuts)
9	미라이 기숙사 (H. de Razac)	미라이 거리 32-35 번지 (32-35, rue du Mirail)	미라이 거리 41-47 번지 (41-47, rue du Mirail)
10	생트 안 수련소(1843-1870)	생 저네 길 62 번지 (62, chemin de St Genès)	생 저네 거리 160 번지 (160, rue St Genès)
11	라 미제리꼬르드 (1807)	마정디 거리 (Rue Magendie)	마정디 거리 54 번지 (54, rue Magendie)
12	F M I 수련소 (1824-1830)	마자랭 거리 1 번지 (1, rue Mazarin)	마자랭 거리 2 번지 (2, rue Mazarin)
13	샤미나드 신부 묘지		샤르트뢰즈 (Chartreuse)
14	생 프로제 성당	생프로제 광장 (Place St Projet)	(현재 폐쇄되어 있다)
15	생트 에울라리 성당		
16	생 뿔 성당		
17	생 엘로이 성당		

N. B.

당시 문헌들을 참조하여 세운 도표이며 이 도표는 APOTRE DE MARIE,
tome 8, année 1911-1912, p.398/399에 실려있다.





추천하는 경로

Rue Canhiac(까니악 거리)

Cours Victor Hugo(빅토르 위고 산책로)

Rue Saint James(생 잠모 거리)

Rue Coubertin(꾸베르탱 거리)

Rue Ravez(하베즈 거리)

Rue des Ayres(아이레 거리)

Place J. Lafargue(라파귀 거리)

Rue Sainte Colombe(생트 꼴롬브 거리)

Rue Buhan(부안 거리)

le cours Victor Hugo(빅토르 위고 산책로)를 통해 귀가

생 엘로이 구역(Quartier Saint Eloi)

생 엘로이 구역은 샤미나드 신부가 신학 공부를 위해 이따금 보르도에 왔을 때 접했던 첫 번째 구역이다. 이 구역은 대혁명 이전에 보르도 인들의 '라틴가'였기 때문이다.

- **까니악 거리는** 예전에는 까름므 거리로 불렸는데, 남쪽과 북쪽 포부르들과 18 세기 2 번째 성벽을 구분하는 오래된 외호(外濠)인 빅토르 위고 산책로로 이끈다. 라랑드 거리와 거의 병행한 까니악 거리는 라랑드가 창립한 **까름므 수도회** 서쪽 한계를 표시한다. 까름므 수도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날짜와 장소 모두 이론의 여지가 분분하다.

이 거대한 수도원은 외호를 따라 뻗어 있는 아름다운 성당 남쪽으로 뻗어 있다. 사람들은 이 수도원에서 보르도의 영웅인 셔발리에 드 라랑드의 문장과 생 호슈의 지팡이, 보르도에서 1265년 죽은 생 시몬 스트의 성유물을 기린다.

1441년 뼈이 비를랑이 창설한 보르도 대학은 거기서 그의 장엄한 토대를 잡고 있으며, 신학 단과대학을 수용하고 있다.

1882년 대혁명 동안, 수도회는 현재 H.떼시에 거리와 생트 까트린 거리까지 라비라 거리의 연장, 부호 거리가 뚫려 세 개의 소구역으로 나뉘어졌다. 오랫동안 극장이 뼈리에 거리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었다. 회당(시나고그)은 1882년 3 번째 소구역에 세워진다.

*

- **빅토르 위고 산책로**는 생트 까트린 거리 위에 있는데, 수세기 동안 도시의 중심지였다.

오른쪽에, '삼베옹'에 이어, 예수회 회원들은 1572년 부오 거리와 미라이 거리 사이의 큰 땅을 획득한다. 그들은 거기 마들렌 꼴레주를 세운다. 이 이름은 작은 성당에서 가져 온 것으로, 미라이 거리 위쪽에 위치한 이 작은 성당은 꼼쁘스텔 순례자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드 귀엔

공작이 귀용 9 세를 통해 1119년에 창설한 생 작끄 병원에서 납골당으로 사용하던 성당이다. 병원은 비용과 수입을 예수회에 맡겼다.

1702년 끌레주는 교구사제에게 맡겨지지만, 도시는 1772년 그의 관점을 강압하여, 귀엔 끌레주와 병합할 것이다.

건물은 먼저 고등법원에서 세를 내었다. 고등법원은 그 곳으로 옴브리에르 성의 복잡함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을 옮기지만, 대혁명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 시의회는 1791년 그곳에 정착하고, 빨레 드 후안으로 옮기는 1836년까지 머문다.
- 병영이 되어버린 끌레주는 봉떼뉴 고등학교로 된 공립고등학교가 그곳에 1873년 들어섰을 때, 그의 첫 성소를 되찾는다.
- **왼쪽에는**, 시의회 권력자들(라 주라드)이 생 잠므 거리와 귀엔 거리, 생트 까트린느 거리, 포세 사이에 건축된 잘 유지되지 못한 어울리지 않는 지역에 살았다. 생 엘리오 성당과 대형 종은 과거 역사의 두 증인으로 보존되어 있다.



- **생 엘로이 성당**은 먼저 1227년 성곽의 두 벽 사이의 작은 성당이었고, 그 다음, 사람들은 측면 중앙 훌을 확장 시키기 위해 외벽을 뛰어 넘었다. 이 성당은 1497년 완전히 재 손질하고 축성했다.

이 성당은 매년 새 선출자가 장엄하게 그들 임기 실행에서 충실과 충성을 맹세하는 선서(맹세)의 성당이었다.

대혁명 기간 동안 사료 상점으로, 그 다음 1797년에서 1802년 까지 경신박애주의 성전으로 쓰였다.

소교구 성당이 되면서, 성당은 1803-1804년 보구공사 동안 마들렌 성당에서 신자들과 예식을 집전했다.

불행히도 성당은 최근 소교구 정리통합으로 인해 대중에게 닫혀 있다.

- **대형 종은** 시립 옛 망루에 있다. 이 종은 1246년에 세운 문의 네 개의 종탑을 보강하는 내부의 두 종탑 위에 1450년 만들어졌다. 종탑들은 지역 공고에 쓰이는 종을 받기 위해 더 높이 올리고 장식 했다. 지붕은 두 번 수선하는데 그것은 1549년 보르도 반란 이후와 1755년 시립 극장의 화재 후다.
- **귀엔 꼴레주는** (현재 사라졌다) 옛날 구르게 거리였던 꾸베르땅-구베아 거리와 귀엔 거리 사이의 시청 뒤에 있었다.

1533년 쥐라드가 창립한 귀엔 꼴레주는 미쉘 드 몽떼뉴의 두 교수인 제오르즈 부샤만과 막-안토안 위레, 그리고 엘리 비네 같은 명성 높은 인문주의자들 덕분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기인 16세기 동안 빛났지만 짧은 호황기를 누린다.

2세기동안, 귀엔 꼴레주는 예술 단과 대학의 독점에도 불구하고, 마들렌 꼴레주가 가까이 있는 관계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쥐라드가 서원자의 집을 구입하고 재정비하고, 귀엔 왕립 꼴레주라는 이름으로 신학수업을 포함하여 병합한 두 꼴레주를 여기로 이전했을 때 모든 것은 변했다. 운영은 1784년 독트린회 (Doctrinaires)에 맡겨졌다.

- 서원자의 집(La Maison Professe, 현재 사라졌다)은 공부나 사목사업에 헌신하는 예수회 신부들과 관구장들의 거주지였다.

1624년 창립된 서원자의 집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 1520. 막-안토안 드 구르그(마들렌 수녀회 창립자, 올리브 드 레스토낙의 남편)가 예수회가 쓰도록 기증한 건물들 가운데, 1520년 회개한 윤락여성과 생트 마들렌 수도원으로 변한 생 마르솔 구 병원이 있었다
- 1664년 예수회는 보르도 시장의 거주지인 구 시청을 살 수 있었다. 예수회는 건물을 헐고, 거기에 서원자의 집의 성당을 세웠다. 예수 로마(Gesù romain)에서 영감을 받은 고전주의 양식의 큰 성당이다. 1676년 5월 22일 성 프랑소아 자비에 시성식날, 성당은 축성되었고, 이 성인이 1791년 까지 이 성당의 주보성인이 된다.

보르도 입현 교회 조직 때, 성당은 성 바오로 소교구 성당이 된다. 이 이름은 미래의 도네 초기경이 1842년 성당을 축성할 때 인정할 것이다. 성당은 1789년 이후 왕립 꿀레주 교장 라꼼브에게 맡겨진다.

국립 꿀레주가 된 왕립 꿀레주는 1793년까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1794년 왕립 꿀레주는 국민의회의 임시 창설인 중앙 학교로 대체된 다음, 이 건물들은 도시를 위한 기관이나 사법 기구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다가, 1870년경 라베쓰 거리가 관통하면서 완전히 사라진다.

*

- 1794년 폐쇄된 생 뿐 성당은 1796년 국민의회의 예식에 넘겨진, 꼬트드의 일반창고(Dépôt Général de Cordes)가 된다. 1797년에 빠리의 합법적인 평의회에 의해서 라꼼브는 보르도의 대주교로 선출되었을 때 대성당을 만들었다. 1802년에 가톨릭 전례가 복구되었다. 계속하여 생 꿀롬브 본당으로서 계속되었고, 도미니칸들에게 결국은 맡겨지게 되었다.

*

샤미나드 신부가 이구역을 공부나 신학학위 강좌를 듣기 위해 자주 드나들었다면, –이것은 물론 루이의 경우였다 –샤미나드 신부는 또한 성당 서쪽 벽에 인접한 소성당에서 모이는 학생들의 꽁그레가시옹 역시 자주 만났다.

샤미나드 신부는 구역의 옛 본당인 생트 꿀롬브 성당의 성직록을 받는 라코아 신부와 연속적인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그 곳으로 가기 위해, 샤미나드 신부는 아이레 거리 오른쪽인 장터 (Vieux Marché ; 현재 라파르그 광장)쪽으로 생트 꿀롬브 거리를 따라서 가면, 옛날 이 성당이 서 있던 작은 광장에 이른다. 1791년 폐쇄된 생트 꿀롬브 성당은 구역의 재편성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뷔안 거리 4 번지에 생트 꿀롬브를 소개하는 궁륭 머릿돌을 보라)

산책자는 완전히 개조되고 재건축된 도시의 시작하는 구시가지인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려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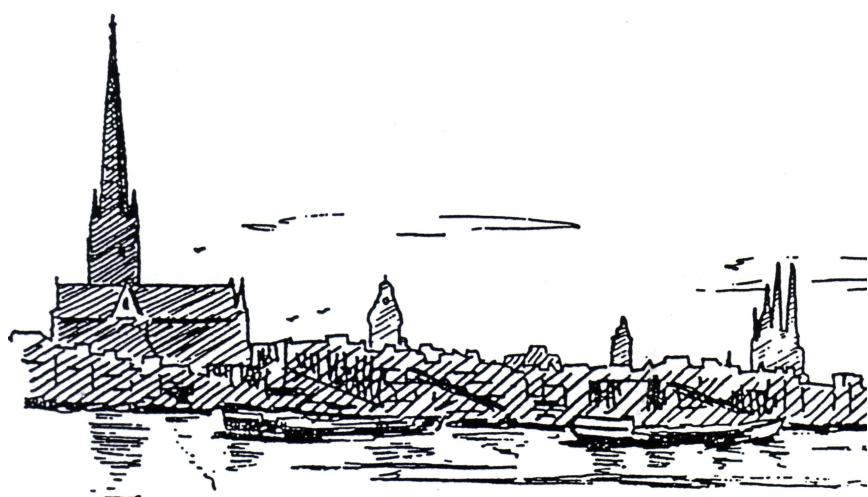
- 18 세기 독립교회파들에 의해, 북스 광장(옛날 루이 15 세 광장), 강 위의 파사드, 고등법원 광장
- 대혁명 기간동안, 파괴된 옴브리에르 성(까이오 문)
- 1865년에서 1869년까지, 도면에서 남쪽으로 로마 성벽을 따라가는 알자스-로렌 산책로가 뚫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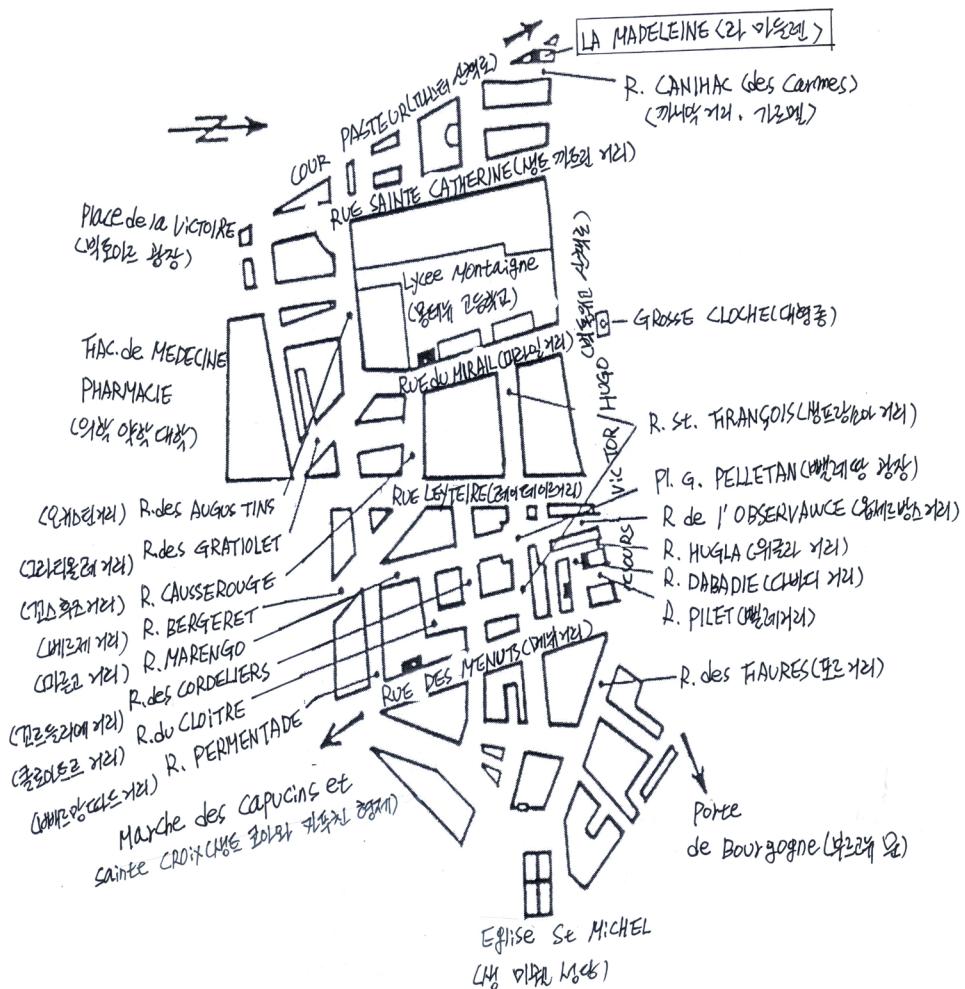
*

1790년 5월 또는 1791년 12월 보르도에 샤미나드 신부가 도착했을 때의 샤미나드 신부를 맞아들이기 원하는 사람은 부끼에르 거리를 따라, 빅토르 위고 산책로로 내려가, 부르고뉴 문까지 간다. 그때는 그가 아직 젊었을 때다(1751-1755). 이 문은 14세기 성벽 문인 살리니에르 문에 잇달아 있다.

그리고 이 문은 도시 중심쪽으로 상인들과 여행자들의 매우 큰 왕래를 유도했다.

베드로 다리는 장소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또한 강에서 배타기는 1810-1822년 나폴레옹이 원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추천하는 경로

Cours Victor Hugo(빅토르 위고 산책로)

Rue Hugla(우글라 거리)

Rue Dabadie(다바디 거리)

Rue des Menuts(머뉴 거리)

Rue Permentade(뻬르망따드 거리)

Rue Bergeret(베르저레 거리)

Rue Causserouge(코스투즈 거리)

Rue du Mirail(미라이 거리)

생 미쉘 구역(Quartier Saint-Michel)



- 부르고뉴 문과 강쪽으로 빅토르 위고 산책로를 내려오면서, 우리는 오른 쪽에 샤미나드 신부가 분명 대혁명 기간동안 활동했던 구역을 보게 된다. 이 구역은 메로빙고 왕조 시대 베네딕도 수도회 생트 코아와 그의 계열 수도회이자 경쟁 수도회인 생 미쉘 주위에서 개발되어 있다. 왜냐하면 강을 통한 화물수송은 수많은 수공업자들과 근로자들에게 일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인구는 외부 대로 쪽으로, 더 여유로운 구역으로 옮겨졌고, 이민자들, 포루투갈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북 아프리카인들이 오늘날 보편화 된 편의시설이 결핍된 매우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이 18 세기 대형 건물에 살고 있다.

수공업자와 근로자들의 구역들은 또한 대혁명의 폭풍우가 사라지게 한 수도원과 봉쇄 수도회들이 특히 좋아했던 구역이었다. 베네딕도회, 생트 코아 베네딕도 수녀회, 카푸친회, 아우구스티노회, 까르멜 회, 그리고 프란치스코회의 대형 수도회 등이다. 이 수도회들에 대한 기억은 생 프랑소아 거리, 클로아트르 거리, 꼬르들리에 거리, 머뉘트 거리들로 인해 영속한다.

- 포세(열호들)에서 꾸방(수도원)으로 가는 길은 세 경로가 있다.
 - 옵세르방스 거리, 이 거리는 뻘르땅 광장(옛날 생 프랑소아 광장) 인 정문으로 이끈다.

- 우글라 거리(옛날 까베이르 거리), 이 거리에서 선서 거부자(사제)들이 대혁명 동안 확실한 친구들을 찾았다.
- 빨레 거리는 머뉘 수사들의 공동묘지로 인도한다.
- **다바디 거리**(옛날 튀르칸 거리인 예전에 아바디 거리)는 우글라 거리와 머뉘 거리를 이어준다. 그리고 두 길 모퉁이인 13 번지 친구 샤뉴집은 1795년 7월 8일까지 샤미나드 신부에게 서류상의 거주지였다. 꼽그레가시옹의 첫 교장 에스테브네씨는 빨레 거리 맞은편 8 번지에 주거했다.
- **머뉘 거리**(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의 별명)는 상인들과 부르주아 거리로, 동쪽에 수도원이 있었다.

에스테브네 씨는 51 번지에 기숙사를 운영했는데, 그 덕분에 세구르 막다른 골목 53 번지에 1818년 11월 작은 공동체가 입구 채광창 위에 아직 첫글자 R.L.를 갖고 있는 루이 16 세 건물에 정착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오귀스트 씨는 공식 허가를 1819년 5월 11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기숙사는 학년 말 이전에 개관했다. 오랜 뒷거래와 그리고 소시에떼 역사에서 무거운 결과를 남겼던 계약 이후, 다른 야심을 갖고 있었던 에스테브네 씨는 1819년 10월 29일 51 번지를 매각하고, 기숙사 개관은 정상적으로 11월 3일 이루어졌다.

우리는 여기서 소시에떼의 이 첫 기숙사의 역사를 쓸 수는 없을것이다(P. 움베르트클로드, 「라랑드 신부」, 1932, 32-59 쪽 참조). 그러나 이 기숙사의 성공은 대단한 것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 점점 더 불어나는 학생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더 특별한 건물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샤미나드 신부는 1824년 5월 12일, 라 마들렌에서 더 가깝고 더 큰 건물을 구입한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미라이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뗄 드라작은 17 세기 건물로 아마도 1650 년에서 1680 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41 번지에서 47 번지까지 걸쳐 있었다. 이 건물은 확장의 중요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으나 이 건물의 새로운 목적에 맞추기 위해 오랜 내부개조공사가 필요했다.

1825 오귀스트 기숙사는 1825 년 4 월 29 일 이사할 수 있었다. 샤미나드 신부는 성당을 축성하며, 이 기숙사는 생트 마리 기숙사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이 곳으로 가려면 아래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Rue Permentade(뻬르망따드 거리), 그 다음

Rue Bergeret(뻬르제레 거리, 옛날 작은 가르멜 수녀회 거리), 그 다음

Rue Causserouge (꼬서루즈 거리)에서

미라이 거리(Rue du Mirail)에 진입하면 맞은편에 오뗄(건물)이 있다.

- 미라이 거리의 생트 마리 기숙사는 10 년 동안 오귀스트씨와 그 뒤를 이은 라랑드 씨의 지도로 소시에떼 교육의 유명세를 떨치게 할 것이다. 이 기숙사는 또한 샤미나드 신부를 위해 매우 괴로운 근심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숙사를 1835 년 아쟝 근처의 라이락 수도원에 이전 한다는 라랑드 신부의 불행한 결정은 상승 중이던 이 유명세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 건물은 1835 년에서 1874 년까지 임대했다.

1835-1839 년까지, 생 엘로이 본당 신부는 사업을 유지하려 했다. 그 다음 그는 이 건물을 여러 이름의 교육자들-생 요셉 학교, 루이 르 그랑 학교에게 넘겨주었다. 1874 년까지 이 건물은 겨우 명맥을 유지 할 것이다.

1874 년, 프러시아인들의 강압으로 인해 쫓겨난 알자스 수사들의 기여 덕분에 마리아회는 사업을 재기할 결정을 내린다.

프랑소아-이쁠리뜨 에라이 신부에게 운영을 맡긴, 생트 마리 학교는 1874 년 10 월 18 일 개관한다. 4 년동안, 이 학교는 초등부 학생만을

받아들이지만, 1874년부터 학교는 중등부를 개설한다. 보르도인들은 미래이 거리의 길을 보수하고, 1894년 소시에떼는 그랑 레브룅의 아름다운 소유지 안에, 꼬데랑에 다른 학교를 열게 된다.

보르도 대주교 르꼬 초기경에게 격려받은 이 학교는 급성장한다. 심려 신부는 여기에 새로운 생트 마리 사립학교 건물의 첫 부분을 세우는데, 후속 건물들은 세워 지지 않는다.

그러나 1901년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법에 위협받은 소시에떼는 미래이 거리의 생트 마리 학교를 폐쇄할 결정을 한다. 건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몽 드 뼈에떼(오늘날 상호신용금고)에 팔린다. 이들은 건물을 후일 몽떼뉴 고등학교에 넘길 것이다. 성당 색유리들은 이곳 저곳에 분산될 것이나, 살롱의 벽난로는 라 마들렌의 대성당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버지 다음으로 아들들이 유배지에서 굳은 뺨을 먹을 것이다.

*

- **까니악 거리로 가기 위해 두 개의 경로가 가능하다.**
 - 원쪽으로 오귀스탕 거리와 빅토아르 광장(옛 아뤼멘 광장)을 통해
 - 오른쪽으로 미래이 거리를 통해 가면서 다음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n°36 : 오뗄 드 뼈세구르는 19세기 원죄없으신 잉태 수녀회 본원이다. 이 건물은 현재 성가정 수녀회가 운영하는 미래이 학교가 들어서 있다.

n°29 : 오뗄 르베르톤은 보르도 고등법원 초대 법원장(1735-1753)을 기리기 위해 루이 15세 기금으로 세운 것이다. 리슐리외 공작이 모페우 칙령을 실행하면서, 고등법원을 폐지하는 1771년까지 초대 법원장의 아들이 그 후임으로 법원장을 역임한다. 보르도는 그에게 두 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환영을 한다. 곧 1776년, 루이 16세가 리부른에 유배갔던 고등법원을 다시 세워서 옴브리에르 궁으로 아주 잠깐 되돌아 왔을 때다.

1789년 귀족 하원의원 이었던 그는 1790년 고등법원의 폐지를 그의 귀족원 의원들과 함께 막을 수 없었다. 오뗄(건물)은 현재 상호신용금고로 쓰이고 있다.

N°10: 창고 입구를 주목하라. 그것은 옛 생 작고 병원의 성당이다. 이 성당은 1792년 몰리에르 극장이 되었다가, 무도장으로 다시 1830년에 극장이 된다.

생 엘로이 본당신부 알라리 사제가 이 성당에서 예식을 재개 하려 했고, 이 성당을 1837년 로잔 신부에게 맡겼다. 그는 1768년 이 성당에서 첫 영성체를 했는데, 복구시기 동안 선교의 대설교자 였다. 그는 그가 창립한 자비의 사제들을 위한 사제관으로 만든다. 이 사제들은 1882년까지 이웃한 집에서 숙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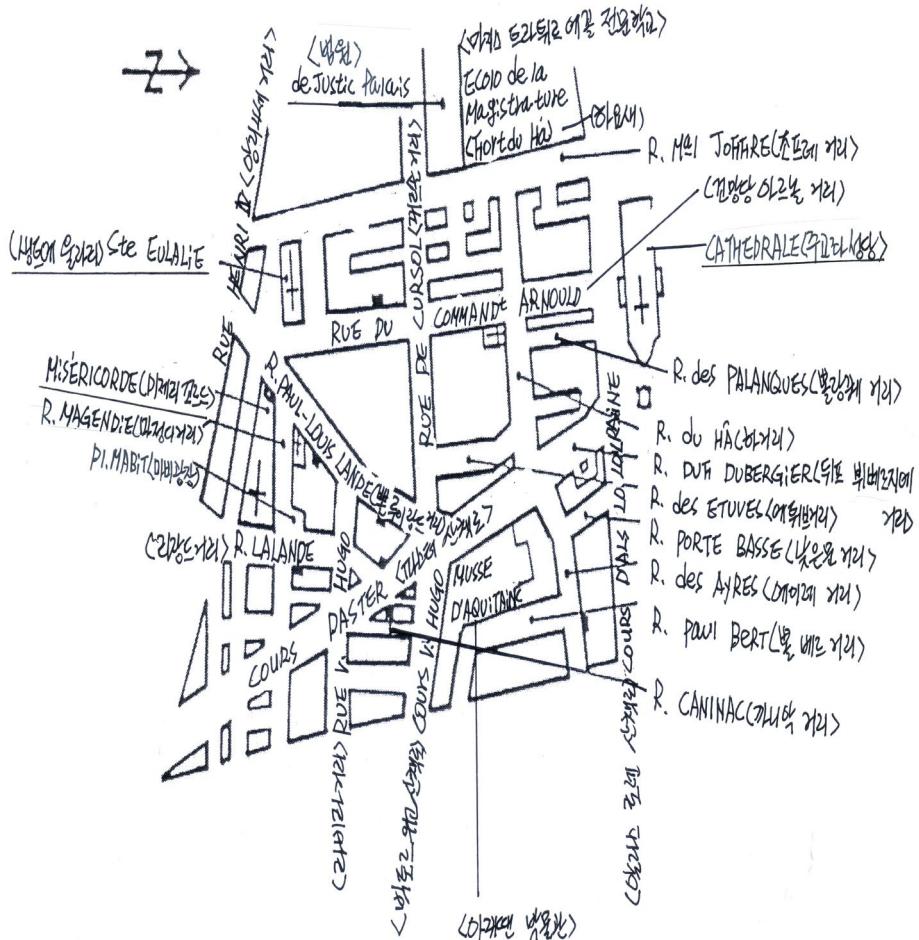
- 걷기예 너무 지치지 않았다면, 생 미쉘과 특히 생트 코아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까르빵떼이르 거리(rue Carpenteyre)를 통하여 생 미쉘에서 생트 코아까지 가기.

생트코아(1762년 이전 예수회 수련소)에서, 뽀르타이 거리(rue du Portail, 옛 조폐국)를 따라 가다가, 아멜 거리(rue du Hamel, 카푸친회 외부수도회, 신학교 광장), 그 다음 트라벡산느 거리(rue Traversane)를 따라 가면 머뉘 거리(rue des Menuts)와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을 어머니로 모시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얼마나 힘있는 방법인가
(귀욤 요셉 샤미나드)



추천하는 경로

Rue Lalande(라랑드 거리)

Rue Magendie(마정디 거리)

Eglise Sainte Eulalie(생트 에울라리 거리)

Rue Jean Burget(장 부르제 거리)

Rue du Maréchal Joffre(마레샬 조프레 거리)

Rue de Cursoi(꾸르솔 거리)

Rue du Commandant Arnould(꼬망당 아르눌드 거리)

Rue Paul-Louis Lande(뽈-루이 랑드 거리)

Rue Labirat(라비라 거리)

생트 에울라리 구역(Quartier Sainte-Eulalie)

- 샤미나드 신부는 보르도에 도착하자 마자 이 구역을 자주 드나들었다. 샤미나드 신부는 이 구역에 1795년 기도실을 열었고, 이 구역에 1804년 결정적으로 정착한다. 1901-1902년 파스터 산책로가 생기면서, 이 구역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라 마들렌의 절반가량이 사라졌다. 8번지와 10번지 전체가 사라지고, 4번지 남쪽 귀퉁이와 성당 중앙 훌 3분의 일이 사라졌다.
- 샤미나드 신부는 미제리꼬르드로 가기 위해 라랑드 거리를 자주 다녔다. 샤미나드 신부는 그가 1804년에서 1819년까지 거주했던 9번지 앞을 지나, 마들렌 옛 수도원 남쪽 경계인 라비라 거리를 통과했다. 조금 더 가면, 그는 1825년 의학과 약학 전문 학교(에꼴)가 된(현재 옛 근로 장학금(Bourse du Travail)) 옛 생 꼼므원형극장을 자주 찾으면서 의학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마비 광장은 현재, 4번째 극빈자 구호 사무소와 고아원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 애덕 수녀회에게 나폴레옹이 양도한 옛 성 요셉 고아원(1638) 위에 최근 세운 사회복지관으로 전망을 준다. 이 광장은 아농시아드 성당의 두 개의 색 유리창을 보게 해 주지만, 성 마들렌 바라가 창립한 성심 수녀회에 후일 합병하게 될 뱅생의 딸들이 대혁명 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첫 가톨릭 학교들 중의 하나를 열었던 지역의 모든 자취를 사라지게 했다.

- 아농시아드 수도원(1521)은 분명 보르도에 가르멜회의 첫 정착 당시 지어졌을 것이다.

마정디 거리로 나 있는 정문은 여러 칭호로 유명한 성당으로 인도 한다.

- 이 성당은 길이 39,5m 넓이 9m로, 마튀랭 갈로팽 십장이 아주 빠른 시간내에 세운 것이다.
- 불꽃 양식의 고딕식 건물인 이 성당은 4개의 연단(travées)을 갖고 있다. 그 중 두 개는 수도자들에게 합창대(내진)로 사용

되었던 계단석(18m)으로 가득차 있다.

- 네 번째 연단(travée)은 두 개의 성당으로 확장된다. 곧 북쪽에 무덤에 놓임 또는 장례 성당과 남쪽에 성모 성당이다. 이 성모성당에는 분명 현재 생트 에울라리에 있는 여러 색깔이 칠해진 아름다운 성모님 상이 모셔져 있었다.
이것은 성모님께 서원하던 아농시아드 수녀회(또는 아베 마리아 수녀회)의 깊은 신심을 증언한다.
- 대혁명 동안 초석 제조소(12 개의 큰 가마솥)로 바뀐 이 수도원은 1822-1823년에 라무루즈 양에 의해 복구되었다.

1801년 드 라무루즈 양은 영적 지도자 샤미나드 신부의 격려를 받아 드 뻬송 롱그빌 양의 고결한 계획을 실행할 것을 받아들인다. 곧 윤락의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행운과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라 미제리꼬르드 사업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고, 여러 번의 이사 후에, 1807년 외상으로 구입했던 아농시아드 옛 수도원에 1808년 4월 5일 이전한다. 하느님의 섭리가 이를 도운다. 곧 보르도를 방문한 나폴레옹운 22800 프랑을 기증하여 빚을 갚아주고, 12000 프랑을 더 기증하여 필요한 보수 공사를 하게 했다.

라 본 메르(성모상)는 1836년에서 1972년까지 곧 미제꼬르드 수녀회가 빼앙으로 옮길 때까지 성당 안에 모셔졌다.

성당과 봉쇄수도원(르네상스식), 그리고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남쪽 측면의 성벽은 1974년 역사 기념물이 되었다.

이 결정은 수도원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 도시는 생트 에울라리 광장위로 주는 큰 건물을 사법기관이 자유롭게 쓰게 하고, 다른 건물들을 문화회관으로 만들기 위해 개조한다.

- 마정디 거리 끝부분에, 도시는 옛 고아원의 성 요셉 성당을 존중했다. 이 성당은 1663-1666년에 라 마들렌 성당과 같은 형식으로 건축되었으나, 정면은 18세기의 것이다.

성 요셉 성당은 고통과 고뇌의 증인이며, 또한 도시를 곳곳에

세워진 감옥에 갇힌 비선서 사제들, 수도자들, 혁명가들, 수많은 신자들의 영웅적인 신앙의 증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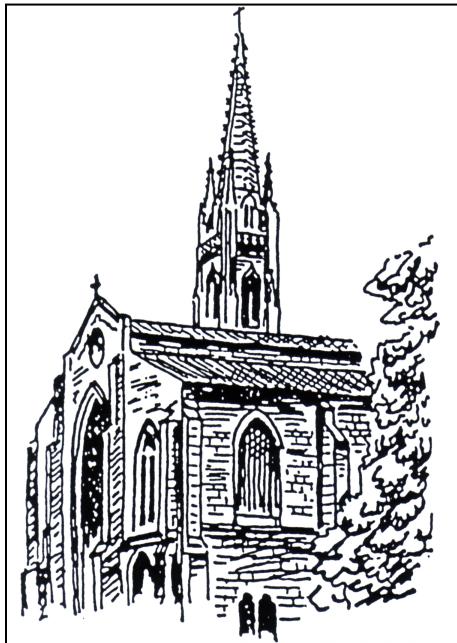
- **생트 에울라리 광장**은 먼저 723년 사라센 족에 의해 훼손된 베네딕도 회 봉쇄수녀원이었다. 이 광장은 성당이 수많은 순례자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재건축되었을 때, 도시 외곽 소교구의 공동 묘지가 된다. 순례자들은 샤를마뉴가 스페인으로 돌아갈 때 이 곳에 남겨 두었던 특별한 성유물을 숭배하기 위해 왔다.
- 그러므로 **현재 성당**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성당의 후진(後陣)은 15세기로 거슬러 오르는 불꽃 양식의 고딕식이며, 1174년 축성된 로마식 교회를 보충하면서 바꾼 수많은 손질마무리를 표시한다.

순례자들이라 불리는 북쪽 옆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문 뒤로, 오른쪽에 아농시아드(천사 방문) 성모상을 만난다. 원쪽에 있는 예수 성심 성당에서는 제단 뒤로 14세기 훌륭한 장식벽을 발견한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부친은 보르도 출신이며, 생트 에울라리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사실은 남쪽 측랑(側廊)에 적혀 있다. 남쪽 측랑은 생 클레르 소성당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에는 19세기까지 보르도에서 매우 숭배된 순교자들의 성유골이 모셔져 있다.

고딕식의 아름다운 성당은 1750년 쇠창살로 닫혀있다. 성당은 1713년과 1885-1890년에 복구되었다. 색유리는 1860년 것이다. 우리는 이 성당에서 생 호슈의 지팡이와 초대 규칙 엄수 가르멜 수도원에서 온 훌륭한 보면대((譜面對)⁴)를 발견한다. 그것은 대혁명 기간동안, 생트 에울라리 성당이 폐쇄되고, 양도된 성당들과 국유화된 수도원들의 가구창고로 쓰였기 때문이다.

⁴ 역사주. 악보대, (큰 책을 보기 위한)서적대



1612년에 벼락을 맞은 첨탑은
1864년에야 보수되는데
그 높이가 51m이다.

샤미나드 신부는 이따금
이성당에서 성무일도를 바쳤다.
그는 1840-1850년동안
본당신부인 수이리 사제곁에서
권고와 이해를 발견했으나
이 관계는 이따금 본당 재산
관리위원회와 함께
시끌시끌했다

1903년, 서쪽 정면은 10m 정도 옮겨진다. 1828년 뽀아띠뱅이
세운 입구(포오치)는 파괴되었다. 1373년 정면 현관은 보르도의
성인들의 영광에 현정된 새 정문 현관 한쪽으로 옮겨졌다. 이 정문
현관 내부 중심기둥이나 정문 횡목을 떠받치는 중앙기둥을 특별히
주의해서 볼 것이다.

*

- 성당 맞은편에 있는 생 안드레 병원 (cf. 1849년 샤미나드 신부
유언장)은 성 라파엘 신학교 정원에 세워진다. 두 건물 모두 중세의
설립을 영속시킨다.

1444년 빼이 메를랑이 설립한 생 라파엘 신학교는 1777년 오르메
산책로 위쪽에 재건축되었다. 1793년 압수된 신학교는 성 요셉고아원
처럼 감옥으로 쓰인다. 그 다음 병사로 쓰이다가, 국군 병원으로,
마지막에는 1878년까지 약학 전문학교(에꼴)로 사용된다. 1878년은 이
건물이 생 안드레에 통합되는 날짜다.

생 안드레 병원은, 1777년에 건물들을 부속시켰던 생 라파엘 신학교 옆에 비탈 샤를르가 1390년 설립한 것으로, 리쉘리유 공작의 후원 자금 덕분에 1826-1829년에 재건축된다.

- 뷔르게 거리(rue Burguet)는 헤삐불릭 광장(마정따 광장, 군대광장)으로 인도한다. 이 광장은 1453년 보르도를 재정복한 직후에 샤를르 7세가 세운 하 요새(fort du Hâ)에 종속되어 있는 군대 지역이었다.
- 하 요새는 도시 서쪽 접근들을 감시한다. 그곳은 늪지로, 드 수르디 초기경이 1609년 아레스 길 위에 대주교관 정원 뒤에 세운 샤르트르 회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정화되었다.

요새는 귀엔의 통치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웅장한 건물이 된다. 대혁명은 요새를 강제 수용을 선고받은 비선서 사제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수용소와 감옥으로 만든다. 요새는 대혁명 이후에도 감옥으로 남아 있게된다. 샤미나드 신부는 요새에 이틀동안 갇혀 있었다. (보르도에서 약간 더 길었던 백일천하 이후) 6월 23일 체포되어 25일 심문 받은 샤미나드 신부는 거주지 구속으로 샤또후로 보내졌다. 사실 샤미나드 신부는 뻐리귀에서 멈추었고, 8월 중순에 보르도로 되돌아온다.

19세기에 요새를 ‘모델 감옥’으로 만들었다. 요새 동쪽에 인접해 있는 미님 옛 수도회는 헌병대 막사가 된다. 1846년 도시는 생 안드레 병원 맞은편에 웅장한 법원을 세운다. 그리고 감옥은 국립사법학교에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얼마 전에 사라졌다.

뮈르솔 거리(rue de Cursol)를 통해 꼬망당 아르눌 거리(rue du Commandant Arnould)와 교차로까지 라 마들렌으로 되돌아와 보자. 꼬망당 아르눌 거리는 1852년 주교좌성당으로 길을 내었다. 이 거리는 빨러그랭 거리(rue Pellegrin)에서 시작되는데, 하 거리를 꿰르솔 거리 (옛 세귀르 거리)와 일치시켰다. 에울라리 광장을 향해 이 거리는 우리 기억에 소중한 막다른골목에서부터 뚫려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세귀르 막다른 골목- 오귀스트 신부가 작은 집을 찾았고(64 번지에), 머뉘거리에 정착하기 이전에 그의 수련기 동안

(1817-1818) 마리아니스트 첫 공동체가 머물렀기 때문이다.

- 교차로(사거리)를 건너서, 17 세기부터 기숙사 소녀들을 맞아들이던 두 개의 큰 수도회가 있었다. 왼쪽은 몽테뉴(1607)의 질녀인 잔느 드 레스토냑 성녀가 세운 노트르담 수녀회의 큰 수도원이다 대혁명은 이 수도원을 수용소로 만들었다. 오른쪽에는 우술린 수녀회다. 같은 시기 에 보르도에서 창립되었고, 가톨릭 여교사 대 관구의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한 그들 수도원의 침묵을 동요시킬 없이 구역의 어린 소녀들을 맞아들이는 데 사용되었던 교실들을 거리를 따라 세웠다. 대혁명은 수도원과 교실들을 사라지게 했다.
- 우리는 왼쪽에 미래의 엘꼴 크레치안 수도회인 꽁그레가시오니스트들을 곧 샤미나드 신부가 지도하던 라파르그와 다르비냑 신부가 운영하던 첫 학교를 열었던 에튀브 거리를 남겨두고, 뿐 루이 랑드 거리로 들어 간다. 이 거리는 1900년에서 1904년 사이에 보르도 시장이었던 분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매우 오래된 생트 에울라리 거리다. (파스터 산책로의 통로 7번) 생트 에울라리의 보좌신부(1819-1823년)인 비안버뉴 노아일 신부에 의해 창립된 성가정 수녀회는 고아원과 그들의 시설을 통해 크리스천 교육 전승을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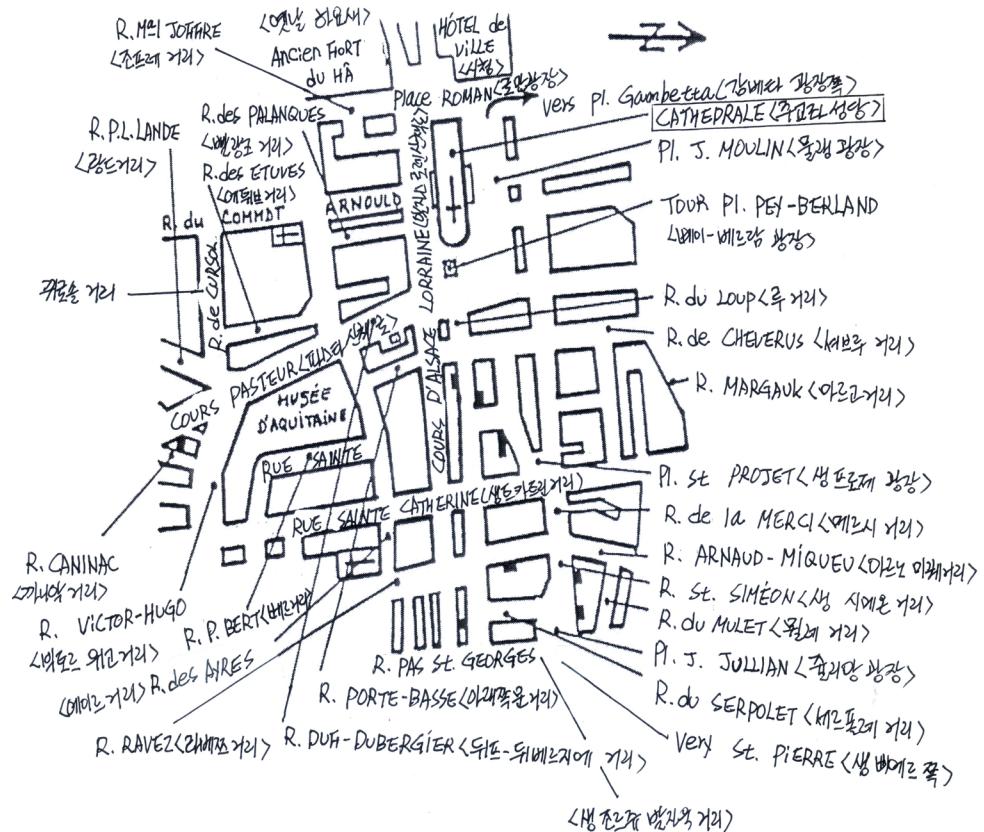
대혁명 동안, 상당한 건물들 특히 28 번지와 46 번지는 비선서 사제들을 위한 피신처가 되었다. 28 번지는 라자르트 가족에 속해 있었다. 이 가정은 주교좌 성당에 후일 안치될 성 시몬 스콜의 성유물을 감추어 두었고, 또한 가르멜 수도원의 빵너티에 신부를 숨겨주었다. 그는 그의 여동생 집인 생트 카트린 거리에서 테르미도르 3일에(1794년 7월 3일) 체포되었다.

심려 신부의 말에 따르면, 샤미나드 신부는 상황이 허락하자 마자 1795년 7월 9일 여기에 기도소를 열었다. 샤미나드 신부는 그곳을 합법적인 그의 숙소로 정했다.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정치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매우 활동적인 종교 중심지로 만들었다.

- 1923년부터, 28 번지는 학생들의 가톨릭 협회가 사용한다. 운동 창립부터(1912-1913년) 딸렁스 캠퍼스 전문학교로 이전하기까지

그들을 맞아들였던 라 마들렌에 그들의 감사를 길이 전하기 위해, 학생들은 그들보다 125년 전에 이 집에서 샤미나드 신부가 했던 것을 2층으로 이끄는 계단위에 고정된 대리석에 새기기를 원했다.

- 46 번지는 예수 성심 숭배 장소로, 용기있는 사람들이 공포정치 내내 지속적인 성체 조배를 계속했다. 이 집은 최근에 사라졌다. 라비라 거리를 통해 우리는 라 마들렌과 파스터 산책로를 만난다.



추천하는 경로

Cours Pasteur(파스터 산책로)

Rue du Hâ(하 거리)

Rue des Palanques(빨랑꼬 거리)

Cathédrale(주교좌 성당)

Place Pey Berland(뻬이 베를랑 광장)

Rue du Loup(루 거리)

Rue Arnaud Miqueu(아르노 미魍 거리)

Rue Saint Siméon(생 시메온 거리)

Rue du Pas Saint Georges(빠 생 조르즈 거리)

Rue du Mulet(위레 거리)

귀가: rue Arnaud Miqueu, Rue de la Merci, Place Saint Projet.

(아르노 미끼 거리, 메르시 거리, 생 프로제 광장을 거쳐서)

주교좌 성당 구역(Quartier de la Cathédrale)

1803년 6월 27일 생 안드레 주교좌 성당의 명예 평의원으로 임명된 샤미나드 신부는 교구의 첫 사목자들과 함께 뒤따른 관계들을 유지하고, 교구의 이 고위직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다.

- 샤를르-프랑소아 다비오 뒤 보아 드 상사이 주교 - 1802-1826
- 장 르페브르 드 셔브뤼 주교, 초기경- 1826-1836
- 페르낭-프랑소아-오귀스트 도네 주교, 초기경- 1837-1882

I. 주교좌 성당 쪽으로

- 주교좌 성당으로 가기 위해, 샤미나드 신부는 땅너 열곡 곧 오늘날 파스터산책로를 지난다. 샤미나드 신부는 1802년 10월 16일 오르도낭스가 창립한 고등학교(왕립 또는 황립)를 따라서 걷는다. 이 고등학교는 1803년 두 개의 수도원으로 개조되었다. 곧 퍼이앙 수도원에 입장의 필요를 위해 연결된 비지땅딘 수녀원이다. 퍼이앙 수도원은 고등학교의 성당이 된 그의 성당 안에 몽테뉴의 영묘를 맞아 들인다.

1873년 고등학교는 옛 마들렌 꿀레주로 이전되었다. 수도원들은 딸랑스 캠퍼스에서부터 이동한, 보르도 대학의 과학 인문 전문대학을 최근까지 수용하게 될 현재 건물들을 세우기 위해 헐어버린다. 한동안 도시 공동체 봉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이 건물들은 오늘날 아키텐 박물관의 역사적이며 보석의 풍성함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레 거리의 사거리에 매우 좁은 거리인 불 뒤 빼딸은 주교좌 성당으로 인도한다.

- 한 거리를 따라가보자.

1, 3, 5 번지는 아일랜드 신학교를 3 세기 동안 수용한다. 군 위원회 회장, 라꼼브는 여기에 프랑스 혁명력 2년 테르미도르

13-14일밤 (1794년 7월 31일- 8월 1일)에 불잡힐 때까지 기숙사를 운영했다.

17번지 오뗄 들라 쌀은 생 요셉 총장수녀가 창립한 성 요셉 수녀회가 1850년 구입한다.

30번지와 32번지 사이에, 노트르담 수녀회의 옛 수도원 성당을 주목하라. 이곳은 1804년 기독교 교회가 된다. 이 성당은 정면에 1900년경 그의 첫소유지가 될 베르소의 동정녀(구유의 성모) 곧 라 마들렌에서 매우 오랫동안 숨배된 성모상을 갖고 있다.

- 옛 성당 앞에서, 빨랑고 거리(rue des Palanques)로 들어간다(삐귀를 건너게 해주는 건널목들). 주교좌성당으로 향해 가기 위해, 샤미나드 신부는 비슷한 거리들에 진입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쪽면은 1865년 경 아바디가 수도원을 철거하고, 현재 성당들을 세울 때 사라졌기 때문이다.

생 안드레(Saint André) 주교좌 성당



주교좌 성당

간략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주교좌 성당은 3세기 파괴 이후 요새화된 장방형의 도시 남서쪽 모서리를 점유했다. 가스코뉴 공작과

아키텐 공작들의 관대함 덕분에 11 세기에 재건축된 주교좌 성당은 1096년 우르반 2세에 의해 축성되었다.

- 여러 번에 걸쳐 개조된 주교좌 성당은 아래의 구조를 15 세기부터 갖게 된다.
 - 서쪽에 정문 현관이 없다.
 - 13 세기에서 16 세기 사이에 베트먼 벽들로 받쳐졌던 아치 모양의 7 개의 트라베의 유일한 중앙 툴
 - 1260년에서 1450년 사이에 세워진 불꽃 모양의 고딕식 내진 가로회랑. 이것은 베르트랑 드 고 대주교 시대인 1305년의 것이다. 그는 아비뇽 교황들 가운데 첫 교황인 클레망 5세다.
 - 회랑 입구에, 샤를 드 그라몽 추기경이 1530-1536년에 쥬베 (성당의 성가대석과 중앙 툴 사이의 높은 주랑)를 세우게 했고, 이것은 1804년 꼴베에 의해 파괴된다.
- 남쪽 정문현관은 성모영보의 성모님께 봉헌되었다.
 - 삼각면과 창사이의 벽은 짐수레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 1794년 파괴되었다. 왜냐하면 1793년 국립건물이었던 주교좌성당은 1794년 보르도 광장의 사료 가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 수년동안 버려져 있다가, 1803년에 가서야 종교예식을 재개한다.
- 내진은 라 레올 성당에서 온 18 세기 쇠창살(블레즈 샤를뤼 작품)로 달혀있다.
 - 성직자석은 생 브루노 성당에서 온 것이며, 장 뚜르니에가 만든 것이다. 주 제단은 툴루즈에서 온 것이다. 곧 예수회가 이 제단을 라 레올의 베네딕도회에 1763년에 팔았다.
 - 내진은 7 개의 소성당(옛날에는 11 개였다)으로 왕관모양으로 에워싸여 있다. 이 소성당들을 우리는 남쪽 가로회랑에서부터 언급할 것이다.
- 성 요셉 소성당은 19 세기에 생 밥티스트 소성당과 제의실, 수장고의 개관으로 인해 개조되었다.

- 생 샤를 소성당(예전에 생 니콜라)에는 아비오 주교의 무덤과 프로제 성인의 제단 뒤의 장식 벽이 있다.
- 우리가 남쪽 가로회랑에서부터 언급하는 생트 안 소성당(옛날 생 작꼬)은 예전에는 중앙홀에 있었던 16 세기 성녀 안나와 마리아 상이 모셔져 있다.
- 후진에 있는 소성당은 예수성심께 봉헌되었다. 옛날에는 노트르담 (성모님)께 봉헌되었었다. 얇은 돌을 새김은 14 세기의 것으로, 내장재는 생 브루노에서 온 것이다. 내진의 문은 아비오 주교가 간청하여 정부에서 연이어 보내준 아름다운 두 개의 성모상으로 에워싸여 있다. 하나는 생트 안 소성당 정면에 있는데, 기쁜 소식의 성모님이란 이름으로 송배된다. 왜냐하면 이 성모상은 그의 손에 편지 또는 스카 풀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생 블레즈 소성당 앞에 있는데, 오랫동안 성모성당으로 송배되었고, 빼이 베를랑(+ 1457)의 지하묘소로 사용되었다. 무덤은 대혁명기간 동안 더럽혀졌다.
- 생 블레즈 소성당, 생뜨 말그릿뜨 라고도 불림
- 생뜨 카트린 또는 성모영보의 소성당
- 가르멜 산의 노트르담 소성당. 탈령스에서 1132년부터 송배된 신심의 성모와 세 명의 마리아, 생 마르탱의 소성당들을 모아서 형성된 것이다. 이 소성당은 주교좌 성당의 두 개의 보물을 갖고 있다. 곧 성 시몬 스톡 성유골과 내진의 고대 성모상이다. 이 성모상은 15 세기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열주회랑에서 송배되다가, 그 다음 서약에 의해, 내진에서, 설교단 맞은편 제단 위에 모셔졌다. 대혁명기간 동안 숨겨져 있던 성모상은 열주회랑에 다시 놓였다가, 1833년 생 프로제의 애덕의 수녀회에 맡겨졌다. 1869년, 성모상은 복구되어, 주교좌 성당에서 이 성모상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소성당에 모셔졌다.

*

- 북쪽 정문 현관에 도착하면, 벽에 고정된 긴 십자가에 인사하고 나가도록 하자. 이 십자가는 1817년 선교때 도시를 관통한 행렬에서 장엄하게 진 십자가다. 정문 현관 앞에 세워져 있던 십자가는 1830년 주교좌 성당 안으로 들여왔다.

또한 1790년 폐쇄된 생 레미 성당에서 온 **설교단**을 특기해서 보자. 이 설교단은 까비롤의 작품이다. **원화창**들에 대해서는, 북쪽에 있는 원화창은 1510년 것이고, 성 안드레아에게 봉헌되었다. 남쪽의 원화창은 17세기 것으로 성모님께 봉헌되었다.

북쪽 **정문현관**은 1361-1369년에 조각되었다. 수장고는 1826년 뾰아뜨방에 세운 성당 안에 보인다. 주교좌 성당의 걸작인 왕립 문은 13세기에 세워졌고, 14세기에 장식되며, 1888년에 완전히 그 모습을 갖춘다.

뻬이 베를랑(Pey-Berland) 탑과 두 번째 대주교관

- 18세기까지 대주교관은 북쪽 중앙을 벽에 수직으로 세워졌다. 수르디 추기경에 의해 완전히 변화되고 장식된 대주교관은 1771-1781년 대주교인 후앙의 왕자 페르디낭 막시밀리안 메리아텍 주교에 의해 파괴되었다. 스트拉斯부르그의 주교인 후앙의 유명한 왕자인 자기 형제의 취향과 나누면서 그는 1772-1778년에 18세기 사치의 증언인 이 훌륭한 건물을 세운다. 이 건물은 차례로,
 - 1790년까지 대주교관
 - 1791년에는 도청(Hôtel du Département)
 - 1801년에는 도청(Hôtel de la Préfecture)
 - 1808년 황궁, 1814년 왕의 저택
 - 1835년 보르도 시청이 된다.

옛 대주교관 부지에 사람들은 집들을 세웠는데, 1885년 사라졌다.

- 베이 베를랑 탑은 1440년 주교좌 성당의 종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탑은 80 미터 높이에 첨탑을 올렸다. 1617년 벼락을 맞아 훼손된 탑은 보수되지 못했고 1793년 완전히 무너뜨릴 뻔 했으나, 군중이 이에 반대했다.

1820년경 사냥용 납탄환 제조소로 바뀌고 정부는 1850년 도네 주교의 간청으로 매입한다. 11,250 kg의 대형 종이 1853년에 놓이고, 1863년 마리아 상이 놓인다.

탑은 완전히 알자스 로렌 산책로가 뚫릴 때 되찾게 된다.
베이 베를랑 광장은 1885년 현재 상태로 정돈되었다.

생 프로제(Saint-Projet) 광장 쪽으로

- 루 거리(rue de Loup)를 통하여, 샤미나드 신부가 꽁그레가시옹을 창립하기 위해 거주를 결정했던 옛 도시로 들어간다.
 - n°78 : 오뗄 뒤 프레지던 하베쯔(1770-1849)
 - n°71 : 오뗄 드 라거노, 1634-1648년에 세웠다. 이 건물은 1939년 이후 학회와 보르도의 시립 기록 보관소를 수용한다.
 - n°6 : 라코아 신부가 살던 곳이다.
- 원쪽으로, 우리는 아르노 미끼 거리에 도착한다. 거기서 꽁그레가시옹이 탄생했다. 이 거리는 1421년 용맹으로 이름난 쥐라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거리는 동쪽으로 생 시메온 거리와 서쪽으로 라 베르시 거리라고 불리는 다른 길과 교차한다.
- 생 시메온 거리 (Rue St Siméon)는 우스토 모나데이를 따라 뻗어 있다. 여기서 당시 생 시메온의 본당신부였던 장 드 풍떠네이는 그가 1636년 창립한 성직자 꽁그레가시옹을 1651년 정착시킨다. 생 뱅상 드 뿐에게 권고받은 이 사제들은 주교의 방침에 따라 사제양성과 신품 준비를 돌보았다.

꽁그레가시옹은 1682년 사라지고, 신학교는 1791년까지 라자로회에 맡겨진다. 신학교는 1747년 빨레 갈리엔 거리(rue du Palais Gallien)로 옮겨지고, 소유지는 1790년에 몰수 당한다.

그러므로 거리로 나 있는 건물들은 최근의 것이다. 샤미나드 신부는 분명 15번지에 살았을 것이며, 월레 거리(rue du Mulet)에 아직도 보이는 큰 건물에 일부를 세 내었을 것이다. -현재 건물은 학교에 통합되어 있다.

- 라 메르시 거리(rue de la Merci)를 통해, 생트 카트린 거리와 생 프로제 광장을 만난다. 우리는 또한 옛 본당 공동묘지의 십자가와 18세기에 다시 세워진 샘터, 1790년 파괴된 성당의 종탑을 볼 수 있다.

짧은 산책

산책가들에게 라 고메디 광장(place de la Comédie) 쪽으로 생트 카트린 거리(rue Ste Catherine)를 천천히 오르도록 제안한다.

산책가들은 아래에 묘사될 두 여정을 따르면서 18세기 보르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한 이들은 마르고 거리(rue Margaux)와 셔브루 거리(rue de Cheverus)를 통해 라 마들렌 쪽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셔브루 거리는 샤미나드 신부가 셔브루 거리 8번지인 남서 일간지가 오늘날 자리잡고 있는 건물에 대주교관에 갈 때 매번 지나갔던 길이다. 도네 주교는 이 건물이 너무 간소하다고 생각하여, 1855년 경 리슐리외 공작에 의해 유명해진 왕립 통치자의 옛 건물로 옮겼다. 그리고 이 건물은 1905년 이후, 비탈 샤를 거리(rue Vital Carles, 17번지와 19번지 사이)인 지롱드 도지사의 민간 오뗄이 된다.

샤미나드 신부는 대혁명 이전에 수많은 국회의원과 유명한 변호사들을 양성했던 법학 전문학교(에꼴)가 아직 있었던 거리에 그 이름을 주었던 옛 로마 성벽의 낮은 문(Porte Basse)을 볼 수 있었다. 의학 전문학교는 아이레 거리(**rue des Ayres**)까지 이른다. 아이레 거리는 방문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비선서 사제들을 숙식시켰던 그리스천들(이브 데이레 부인같은)과 수녀회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10 세기에 몽떼뉴 거리였던 뿔 베르 거리(**rue Paul Bert**)에는 퍼이앙 수도원이 있다. 이 수도원에는 1791-1792년 보르도 수도원들의 고문서와 도서관들을 모아 두었다. 뿔 베르 거리는 빅토르 위고 산책로에서 매우 가까운 생트 카트린 거리와 통한다.



18 세기 보르도

18 세기 보르도를 알고 싶어하는 방문자들은 코메디 광장까지 갈 것이다. 샤미나드 신부는 라투르 향수 가게주인 집인 생트 카트린 거리 북서쪽에서 1791년 12월에 며칠 머물렀다.

코메디 광장에서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두 개의 경로가 가능하다.

1. 로마 성벽 북쪽 한계를 표시하는 샤뽀 후즈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기. 이것은 샤미나드 신부가 1849년 유언장을 쓰기 위해 15번지에 사는 공증인에게 갈 때 샤미나드 신부가 마지막으로 외출한 길 가운데 하나다.

산책로는 옛날 루이 15세 광장인 북스 광장(Place de la Bourse)으로 인도한다. 빠 데 꿔졸 거리(rues du Puits des Cujols)와 데 포세 거리(rue des Faussets)를 통해 성 베드로 광장으로 갈 수 있는 고등법원 광장까지 가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광장은 드비즈(Devise)에 의해 공급된 보르도의 골과 로마 항구였다.

꾸르 데 제드 거리(Cour des Aides)를 통해 강변으로 통한다. 조금 더 가서 세번째 성벽의 항구들 가운데 하나인 까이오 항구(Porte Cailhau)가 있는데 이 항구는 1495년에 샤를르 8세가 승리한 푸르누 전쟁 (이탈리아)의 기념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주라드가 항구로 만든 것이다. 이 항구는 빨레 광장(Place du Palais)으로 나 있는데, 옛날에 나무가 심겨 있었고, 로마 성벽 남동쪽 모퉁이에 아귀뗀 공작들이 세운 옴브리에르 성으로 이끈다. 영국통치동안, 정부 부서들이 모두 이 성에 있었다. 재탈취 이후, 루이 11세는 귀엔 고등법원을 여기에 세운다.

고등법원들이 1790년 폐지되었을 때, 성은 감옥-빨레 브뤼튀스-이 되고, 작은 바스티유는 1800년경 파괴자들의 곡괭이에 넘겨진다. 이 성은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다.

*

2. 다른 여정은 편꽁스 광장(Place des Quinconces)까지, 투르니 작은길 (Allées de Tourny)에서, 코메디 광장(Place de la Comédie) 주위로 산책하도록 초대한다. 편꽁스 광장에 샤를르 7 세가 트롬펫 성 (Château-Trompette)을 세우게 했다. 이 성을 루이 14 세는 보방 (Vauban)에서 중요한 요새로 만들었다. 이 성은 보르도인 들에게 증오 받았는데, 1815년 이후에야 사라진다. 지롱당(Girondins)의 명예를 위하여 기둥이 1894-1899년에 세워진다.

역사 애호가들은 모트렉 거리(rue Mautrec)를 가 볼 것이다. 이 거리에서 샤미나드 신부의 조카 빅토르는 얼마동안 호텔을 경영 했다. 모트렉 거리는 샤쁠레 광장(Place du Chapelet)으로 통한다. 노트르담 성당이 이 광장으로 향해 있다. 이 성당은 루이 14 세의 명령으로 성채의 경사진 침식면을 제거하기 위해 도미니꼬회 수도원이 파괴된 후, 1684-1707년 사이에 도미니꼬회에서 세웠다.

교회에 인접한 건물은 아름다운 외관이었던 18세기 그들 수도원의 남은 부분이다. 혁명가 클럽 센터가 된 이 건물은 1797년에서 1887년까지 군대 상품 취급소를 수용할 것이다. 이 건물을 획득한 도시는 이 건물에 특히 혁명가들이 압류한 모든 것들로 풍성해진 시립 도서관을 설치한다. 라뻬데르 박물관은 열주회랑에 그의 귀중품들을 축적했으나, 종이가 돌을 쫓아낸 것처럼 이 박물관은 자리를 보물고에 넘겨야 했다. 시립 도서관은 현재 메리아덱의 새 구역의 건축물들 가운데 손꼽힌다.

*

세즈 샷길(passage Saige)을 통해 앵땅당스 산책로(Cours de l'Intendance)로 되돌아오자. 감베타 광장(Place Gambetta)을 향해 세즈 샷길을 올라가면서, 우리는 왼쪽에 건물뒤에 숨겨져 있는 생 뿔린 드 놀이 태어난 뿔린 성의 기반위에, 1690년경 다시 세워진 앵땅당 오뗄(l'Hôtel des Intendants)의 잔해를 지나간다. 그러시 거리(rue de Grassi)와 같은 높이로 우리는 왼쪽에 가르멜

대 수도원 이었던 것을 그리고 오른쪽에 레꼴레 수도원을 따라간다. 레꼴레 수도원에서, 샤미다드 신부의 형제인 블레즈가 1789년 이전 수련장 신부로 있었다.

산책로끝에, 뚜르니는 세 번째 성벽의 한 문을 전망 때문에 희생 시킨다. 그리고 도시의 가장 내버려진 땅들 가운데 하나 위에 도핀 광장(Place Dauphine)이라는 이름으로 영속될 한 광장 건설을 건축가 보아장 (Voisin)에게 맡긴다. 1746-1770년에 실현된 이 광장은 1790년 12월 14일 국립광장이 되며, 단두대가 이 광장에 1793년 10월 23일에서 1794년 8월 14일까지 세워진다. 오늘날 이 광장은 감베타의 기억을 후세에 전한다! 공포정치의 희생자들은 이 광장에 보통 부프르 거리(rue Bouffard)를 통해 도달한다. 왜냐하면 군 위원회(Commission Militaire)가 몽바종 거리(rue Monbazon)를 따라 있는 시청 건물들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 두 가지 경로는 부르고뉴 문에서 출발하여, 강변도로, 산책로들, 감베타 광장 등을 돌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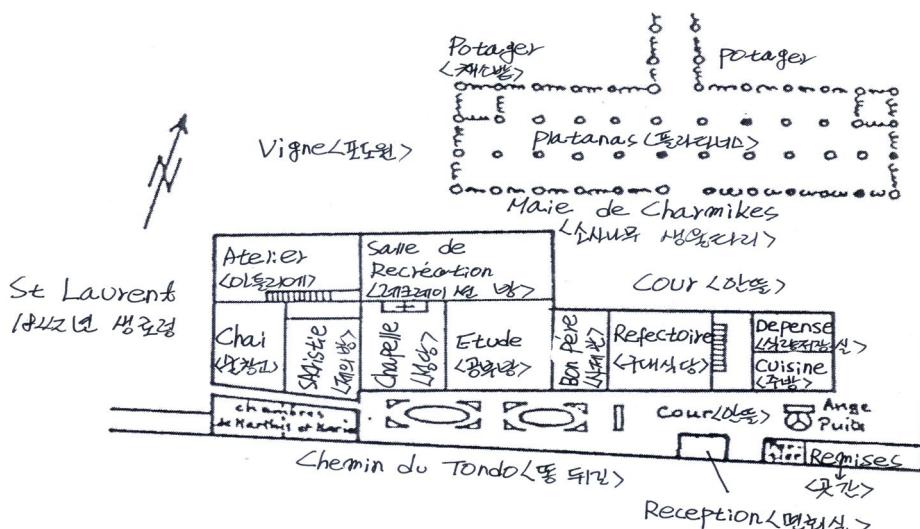
노비시아 쪽으로

생 로령 (Saint Laurentt)

생 로령으로 가기 위해: 생 에울라리 성당, 알베르 산책로(Cours d'Albret) 쪽으로 앙리 4 세 거리(rue Henri IV), 산책로를 건너서, 둘뒤 거리(rue du Tondu)로 들어간다. 이 길은 샤미나드 신부가 자주 다녔던 길이다. 둘뒤 거리는 샤르트르회가 습지에서 물을 뺀 늦지 지역의 남쪽에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통한다. 이 거리는 옛날 마을 이었을 폐허인 특별한 명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1791년 12월 10일, 샤미나드가 구입한 소유지는 소시에떼 역사에서, 부근에 있는 옛 성당인, 생 로랑이란 이름을 가질 것이다. 1헥타르 반 정도의 면적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이 소유지는 포도원, 정원, 주거용 정자, 술창고, ‘농부를 위한 거주지’, 모든 것 이 매우 비참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개조와 보수를 한 후, 벽들은 옛 모습을 되찾았다.

- 229 번지는 소유지 초기를 표시하는 새 건물이다.
 - 231-233 번지는 1807년에 더 높인 옛 주거용 정자로 1960년 완전히 개조되었다.
 - 235-237 번지는 층이 없고, 사무소와 성당이 있었다.



8 개월 동안 새 소유주는 이곳을 활용하기 위한 발걸음을 증대 시킬 것이다. 그는 이곳을 고립된 부분을 구입하면서 보충하고, 길 쪽에 벽을 세우고, 포도나무를 전지하고, 나무들을 심고, 거기에 1792 년 4 월 그의 부모를 정착시킨다.

그러나 1792 년 9 월, 상황은 위태롭게 된다. 루이 샤미나드는 배를 타기 위해 보르도를 지나가고, 귀욤-요셉은 필요한 대비를 미리 한 후, 점점 더 지하운동으로 몰두하게 될 것이다. 샤미나드의 부친은 아들이 계속 무릅쓰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망명자 리스트에 자동적으로 적히게 될 때 소유지의 기탁과 1794 년 9 월 9 일 아내의 사망 등 상황에 대처 했다. 귀욤 요셉이 유배를 떠나야 했을 때, 프랑소아가 그의 부재 동안 소유지를 운영할 것이다.(1797-1800)

- 1800 년 이후, 생 로령은 자주 꽁그레가시옹회원들을 맞아들인다.

1806 년에서 1811 년까지, 샤미나드 신부는 이곳에 그가 한 총을 더 올린 정자(작은 건물)에 에꼴 크레치안 수사들의 수련소를 받아들인다.

왕정복고 시대에 꽁그레가시옹 회원들은 뚱뒤 길을 다시 츄한다. 그리고 1817 년 생 로령에서, 1830 년까지 우리의 기원들을 표시할 일련의 긴 첫 피정들이 있을 것이다.

1821 년 10 월, 샤미나드 신부는 이곳을 소시에떼의 첫 수련소로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는 알자스에서 방금 온 호테아 신부를 보좌로 클루제 신부에게 그 운영을 맡긴다.

점점 더 늘어나는 이 피정자들과 청원자들, 수련자들, 70 명으로 늘어난 유기 서원자들을 어떻게 숙식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기숙하고 양성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리아회 역사가들이 피상적으로만 다루었을 뿐이다. 생 로령은 아직 그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 1831 년 샤미나드 신부는 젊은 청원자들을 분산시키기로 결심했다.

7 월 혁명이 발생시킨 반교권주의자 반응은 매우 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샤미나드 신부는 1814 년에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수련소는 12 월 8 일 열린다. 수련소는 쇼방 신부에게 맡겨지지만,

1843년 생트 안느(Ste Anne)으로 옮겨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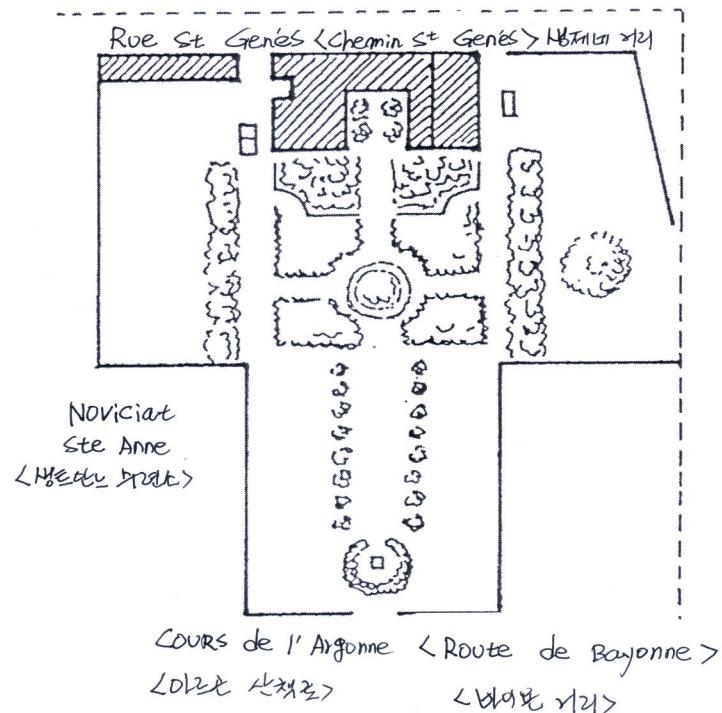
- 생 로령의 소유지는 어떻게 되는가?(cf. 샤미나드 신부의 유언장)
소유지에 대해 어림짐작을 하려면, 죠르주 5세 대로/ 마레샬 르클렉 대로 (Boulevard Georges V / Boulevard Maréchal Leclerc)까지 가서, 이 대로를 건너서, 세나거리로 계속 가서, 샤미나드 거리를 통해 되돌아 와서, 144 R.I 거리(rue du 144ème R.I.)를 통해 마티우 거리(rue Mathieu)까지 계속 간다.(자동차로 일주는 반대 방향으로 해야한다. 왜냐하면 무네이라 거리와 똥뒤 거리(les rues Mouneyra et du Tondu)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이다)

생트 안느(Sainte Anne)

- 생트 안느(애니 – 영어발음)으로 가기 위해, 생트 에울라리 성당, 뷔르게 거리(rue Burguet), 원쪽으로 아리스티드 브리앙 산책로(Cours Aristide Briand)를 건너서, 꼬스테도아 거리(rue Costédoat)를 빼삭 거리(rue de Pessac)와 교차하는 곳까지 가서 생 저네 거리(rue St Genès), 마자랭 거리(rue Mazarin)를 간다.

생 저네 거리(rue St Genès)로 들어가기 전에, 원쪽에 마자랭 거리 2번지에서 한 건물을 보라. 이 건물에는 F.M.I. 수련소가 1825-1831년에 있었다.

생 저네 거리(rue St Genès) 160번지에서, 우리는 1874년까지 에꼴 크레치안 수사들이 운영해 온 생 저네 학교의 중요한 건물들을 볼 것이다. 이 건물들은 당시 교장이었던 루셀 신부가 1842년 이곳에 생 로랑 수련소를 짓기 위해 구입했던 소유지에 세워진 것이다.



두 날개로 감싸인 집의 몸체와 함께 아름다운 스승의 집, 나무들이 심겨진 산책로, 집 전체가 큰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유자는 아르곤 산책로까지 뻗어 있다. 얀쪽에는, 시련들에 사로잡혔던 샤미나드 신부가 매우 자주 기도 했던 성모상이 있다. "그녀는 네 머리를 짓이길 것이고, 항상 너를 짓밟을 것이다!". 이 성모상은 아르곤 산책로(Cours de l'Argonne)에서부터 볼 수 있는 성모상이 아니다.

- 수련소는 이곳에 수련장 신부 없이 1843년 3월 19일 이전했다. 왜냐하면 쇼방 신부가 1월 19일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루셀 신부는 라 마들렌과 거리를 두기 위해 쇼방 신부의 빈 자리를 서둘러 대치한다. 그리고 1844년 6월 28일 루셀 신부는 레알롱으로 피신하면서 라 마들렌과 더 거리를 두기로 결정한다. 그가 수련자들에게 했던 폐해를 알고 있던 샤미나드 신부는 수련자들의 양성을 직접 담당한다. 이것은 까이에 신부가 생 레미에서 열린 총회에서 총장 신부로 선출될 때까지다. 까이에 신부는 1845년 10월 26일 제1평의원인 셔보 신부에게 수련소를 맡긴다.
- 샤미나드 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그가 사랑하는 수련소에 강론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일요일 오후를 쉬기 위해 자주 들렸다.

*

- 1870년, 수련소는 국가 소유로 내어놓기 위해 집을 비웠다. 국가는 이곳에 임시적으로 이공계 전문학교를 정착시켰다. 수련자들은 꾸베이락에서 맞아들였는데, 그곳에서 마리아회는 농작 소유지를 개간했다. 그 후 1872년 모아삭에 정착한다. 그때 종부 관구 센터와 꾸베이락 농민들은 고아원을 맞아들인다.
- 이 수련소는 게다가 1897년 보르도로 되돌아온다. 끌레 영지로, 미라이 거리의 생트 마리 학교 교장인 에라이씨가 1892년부터, 보르도 공동체들의 동료의 집을 만든 곳이다.

이곳은 딸렁스 성당 근처에 있는데, 이 성당에는 고통의 성모님 이 12세기부터 숭상되고 있었고, 이 성당에 샤미나드

신부는 1849년 9월 마지막 외출을 아마도 했을 것이다. 수련소는 정상적으로 발전 되기를 희망할 수 있었다. 인간은 제안하고 하느님은 처분하신다. 1903년 수련자들은 빅토리아로 보내졌다. 그리고 선배들은 청원자들을 따라 에스코리아자로 그리고 1905년 레케이티오로 뒤따라간다.

샤르트뢰즈 (la Chartreuse)

- 1850년 1월 24일, 샤미나드 신부의 유골은 1817년 건립된 대형 십자가 소로 거의 끝부분에 위치한, 1829년에 세워진 성직자 납골당에 안장되었다.

납골당은 우리가 들어가는 소성당을 통과한다. 소성당 바깥 벽에는 거기 안장되어 있는 사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귀욤 신부, 마리아니스트, 1865년 8월 6일 사망 이란 글자가 남아있다.)

샤미나드 신부의 무덤에 가려면, 대로쪽으로 이 소로를 끝까지 따라가라.

- 1870년 에티냑 신부(† 1878년 9월 25일)는 1825년에서 1836년 사이에 창립자를 잘 알았고, 창립자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간직했었는데, 창립자의 유골을 받고 보존하기 위해 영묘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1871년 2월 24일, 몇번의 노력 끝에, 관(棺)이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영묘는 1848년부터 큰 길을 향한 공동묘지를 연장한 새 땅에 세워지게 된다.

다른 관에 놓인 유골의 이장은 11월 14일 마리아니스트와 친구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 앞에서 이루어진다. 이 신심 계획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라란느 신부는 창립자와 함께 고통받고 협력하고 체험했던 이들의 마음 속에 어떤 것도 잠재울 수 없었던 감정의 대변인이 되었다.

- 1900년경, 우리 보르도 동료들은 신자들을 이끄는 대중 신심 운동을 환기시킨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로, 그들에게 매우 물질적인 도움을 하늘에 얻어주는 이 익명의 무덤으로 향했는데, 그들은 그의 중개로 하느님께 간구했다.

그 당시 심러 신부는 보르도에서 샤미나드 전기를 완성한다. 심러 신부는 30년 동안 이를 탐구했는데, 이것은 그에게 그가

마리아회의 제 2의 창립자라 불릴정도로 샤미나드 신부의 정신에 들어가게 해 주었다. 1902년 빠리의 르꼬프르와 보르도의 세레 출판사에서 출판된 이 책은 많은 마리아니스트들을 위해 하나의 계시가 될 것이며, 선배들이 남긴 증언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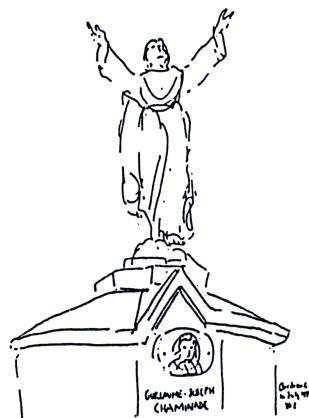
- 1909년, 우리 장상들은 샤미나드 신부 시성식 소송을 로마에 제출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그를 알았던 생존자들에게(83명의 증인들 중에서 14명) 보르도와 비토리아 교회 재판소 앞에서(1909-1912) 그들의 증언을 후대에 전하게 해 주었다.

1922년 소송은 1918년 5월 18일 로마에 들어갔고, 1920년 2월 19일부터 1923년 4월 4일까지 보르도에서 있는 하느님의 종의 덕행들에 대한 영웅성을 위한 사도 소송동안, 우리는 1922년 4월 19일 샤미나드 신부의 유골을 성대하게 승인했다.

세 개의 관-마호가니(목재), 주철, 호도나무-으로 정성껏 보호된 유골은 귀욤 요셉 샤미나드 시성식을 기다리고 있다.



- 세월의 훼손을 복구하기 위해, 여러 번 영묘 공사를 해야 했고, 1963-1964년에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



에티냐르 신부가 세운 영묘는 두 개의 상이 감싸고 있었다. 창립자를 향해 젊은이 들을 인도하는 천사를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용을 퇴치하는 성 미카엘이 있었다. 여기에 4 개의 원형 저부조를 볼 수 있다. 샤미나드 신부의 것, 그의 첫번째 두 명의 협력자인 라란느 신부와 다비드 모니에 신부, 그리고 에티냐르 신부의 것이다.

현재 영묘는 매우 단순하다. 샤미나드 신부의 원형 저부조(1993년에 깨어져서, 1995년에 새로 한 것)와 에티냐르 신부의 것이 보존되어 있다. 세 면으로 된 앞면은 매우 의미적인 수많은 텍스트들이 새겨져 있고, 기념비는 항상 성모상이 올려져 있다.(처음의 것에 충실하다) 이 성모상은 중개와 큰 감사의 태도로 눈과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있다.

여러가지 조언

1 샤미나드 신부의 무덤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은 관리자가 주는 특별 허가를 라 마들렌에서 요청해야 한다.

2 샤르트뢰즈와 노비시아 방문

이 방문은 자동차로 할 수 있다. 그랑-르브륀(Grand-Lebrun)에서 출발하여, 큰 길을 통해 샤르트뢰즈에 도착한다.

샤르트뢰즈 다음에, 우리는 샤미나드 거리를 지날 수 있다.

(르클렉 큰길 (Bd Leclerc) 오른쪽, 상트라이 병영(caserne Xaintrailles) 맞은쪽).

그 다음 세냐 거리(rue Saignat)로 들어가서 큰 길을 가로지른다. 그러면 뚱뒤 거리(rue du Tondu)에 도착한다

- 생-로령(Saint-Laurent): 뚱뒤 거리(rue du Tondu) 229-237 번지.

뚱뒤 거리를 내려가서, 리베라시옹 산책로(Cours de la Libération)에 도착하면 오르쪽(Cours Aristide Briand)으로 가라.

그 다음 꼬스터도아 거리 (rue Costedoat)를 따라 가면 (rue St Genès)에 도착한다.

- 생뜨 안(Sainte Anne): 생 저네 거리(rue St Genès) 160 번지

주요 출전

Evocation du vieux Bordeaux
Minuit(1960)

Louis Desgroves Editions de

Histoire de Bordeaux, publiée sous la direction de HIGOUNET(de 1962
à 1974) (Vol. III, IV, V)Fédération historique du Sud-Ouest, 20, Cours
Pasteur – Bordeaux

Saint Eloi de Bordeaux, par le Chanoine DUPEYRON et REICHES(1951)
Imprimerie Drouillard, 3, Place de la Victoire – Bordeaux

La Cathédrale Saint André de Bordeaux(1952)

Abbé Pierre Brun, Editions Delmas – Bordeaux

Sainte Eulalie, par Maurice FERRUS(1937) Editions Delmas –
Bordeaux

다양한 정보

주 소:

Grand Lebrun	164, Avenue Charles de Gaulle 33200 BORDEAUX	56.08.32.13 56.02.22.25 (fax)
La Madeleine	7, rue Canihac 33000 BORDEAUX	56.92.50.72 56.94.01.96 (fax)
Syndicat d'Initiative Office du Tourisme	12, rue du XXX juillet	56.44.28.41 56.81.89.21 (fax)

버 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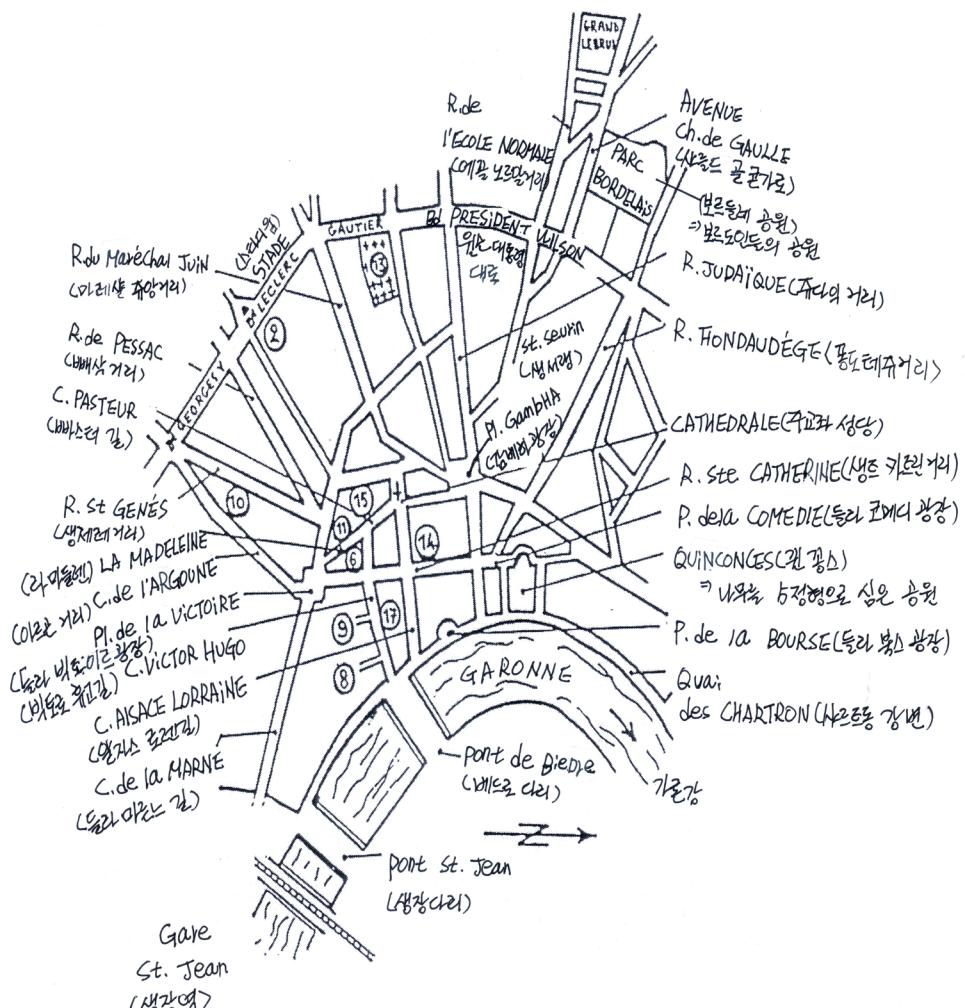
그랑-르브륀 (Grand- Lebrun) ↓ 라 마들렌 (La Madeleine)	그랑-르브륀 (Grand-Lebrun) 에서 17 번 또는 18 번을 타고 쟁 조레 광장(place Jean Jaurès)까지 가서 이 광장(place Jean Jaurès)에서 20 번 또는 21 번을 타고 쿠르솔 정류장(Cursol)에서 하차한다. 또는 그랑-르브륀 (Grand-Lebrun) 에서 17 번 또는 18 번을 타고 간베타 광장(place Gambetta)까지 가서 이 광장(Gambetta)에서 걸어서 비탈-까를르 거리 (rue Vital-Carles)까지 가서 뽀르트 디조 정류소(Porte Dijeaux)에서 20 번 또는 21 번을 타고 쿠르솔 정류장(Cursol)에서 하차한다.
--	---

라 마들렌 (La Madeleine) ↓ 그랑-르브룅 (Grand- Lebrun)	라 마들렌에서 20 번 또는 21 번을 타고 앵땅당스 산책로(cours de l'Intendance)까지 감베타 광장(place Gambetta)에서 1 7 번 또는 18 번을 타고 그랑-르브룅(Grand Lebrun)까지 (운전사에게 묻기)
--	---

라 마들렌 (La Madeleine) ↓ 샤르트뢰즈 (La Chartreuse)	빅토르 위고 산책로(Cours Victor Hugo, 까니악 거리 맞은편)에서 12 번에 승차하여 가비니에 광장(place Gaviniès)에서 하차한다.
샤르트뢰즈 (La Chartreuse) ↓ 감베타 광장 (place Gambetta)	13 번, 조르주 보냑 거리(rue Georges Bonnac)에서 승차한다.
생-장 역 (Gare Saint- Jean) ↓ 그랑 르브룅 (Grand Lebrun) (도심가 관통)	생장 역에서 7 번 또는 8 번을 타고 감베타 광장(place Gambetta)까지 감베타 광장(place Gambetta)에서 17 번 또는 18 번을 타고 그랑 르브룅(Grand Lebrun)까지

보르도 주요 도로

- | | |
|----|------------|
| 2 | 생 로령 수련소 |
| 6 | 라 마들렌 |
| 8 | 머뉘 기숙사 |
| 9 | 생트 마리 학교 |
| 10 | 생트 안 수련소 |
| 11 | 라 미제리꼬르드 |
| 13 | 샤미나드 신부 무덤 |
| 14 | 생 프로제 |
| 15 | 생트 에울라리 |
| 17 | 생 엘로이 |



샤미나드 신부와 마리아니스트에 관에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지속적인 선교에서 마리아니스트
(MARIANISTES EN MISSION PERMANENTE)
L.가디우와 J.Cl.들라스 sm (L. Gadiou et J.Cl. Delas sm)

선교의 길 위에서 (SUR LES CHEMINS DE LA MISSION)
귀욤-요셉 샤미나드 (Guillaume-Joseph Chaminade)
필립 빼에렐 sm (Philippe Pierrel sm)

귀욤-요셉 샤미나드와 함께 마리아를 알고 사랑하고 봉사하기

(Avec Guillaume-Joseph Chaminade
CONNAITRE, AIMER, SERVIR MARIE)
J.B. 아름브라테르 sm (J.B. Armbruster sm)



귀욤 요셉 샤미나드와 마리아니스트들의 신문
(Guillaume Joseph CHAMINADE et le journal des Marianistes)
(칼라로 된 만화앨범)

1982년 유니베르 메디아 출판사 (Edition Univers Media 1982)
총서.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시간들
(Coll. "Les grandes heures des chrétiens")

이 서적들은 마리아니스트 NACMS⁵에서 위탁판매되고 있다.

⁵ NACMS : The North American Center For Marianist Studies